

제8장 종교

1. 현황

용인은 과거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근래에 도농복합도시가 되었다. 용인이 짧은 시간 내에 농촌과 도시 생활 형태가 혼합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 것은 특히 수지 지역과 같은 아파트 밀집 신도시 지역이 형성 되면서부터다. 수지읍은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 유입되는 많은 인구와 그들의 다양한 생활 기초 때문에 기존의 농촌형태 중심의 용인서부와 남부 지역과는 전혀 다른 도시형태를 이룬다. 단기간에 개발 붐을 타고 형성된 수지읍에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이주한 관계로 정신적,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지지역의 종교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조사결과 도시 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종교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지지역의 종교 현황 중 불교, 천주교, 기독교 순으로 볼 때 불교의 경우 800여 년 전의 서봉사지를 비롯하여 해동종의 해동 자비원과 총본산 대원사(1979년건립), 조계종의 서광사(1993년)와 미륵사, 태고종에서 조계종으로 바꾼 보현정사(1967)와 지장사 포교원 등이 있고, 태고종의 관음사와 그밖에 태봉암(1980) 서봉사, 상현사(1998) 등이 있다.

불교의 현황은 급격한 도시화의 거센 바람에도 여전히 전형적인 암자 규모의 포교 활동에 머문 듯 하다. 그중 몇몇 사찰은 갑작스레 유입되는 인구 증가에 부응하여 원대한 포교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다른 종교에 비해 양적으로 그리 활발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설립된 사찰 수와 설립 시점을 보나 근래의 신도수 변화를 볼 때, 도시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지읍에는 불교의 여러 종파 중 해동종 총본산이 있어 그 종지종풍과 교세를 보여주고 있음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민족 종교인 대종교의 경천암이 있다.

수지읍의 천주교회는 조사된 바에 의하면 도시 인구 유입과 함께 1994년에 설립된 수지성당과 1998년에 설립된 효주아네스성당이 있다. 그리고 ‘피정지도·기도의 집’인 수지성모교육원이 동천리에 소재하며 그밖에 160년의 전통을 가진 손골성지가 있음이 수지읍 천주교의 특징이다.

기독교의 경우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토착 주민들의 종교 생활장이던 교회수가 그리 많지 않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서 그 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아파트개발이 시작되면서 인구가 한꺼번에 증가함에 따라 한 해에도 수십 개의 교회가 설립되어 현재 교회수가 100여 개에 이른다. 앞으로도 아파트주민 입주가 완료되기까지 당분간은 이런 양적 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단기간 내의 교회설립 폭증은 한편 꾸준한 교회 이전과 그에 따른 신도 이동을 말한다.

그런 가운데도 수지읍에는 70여 년 된 신흥교회와 40여 년 된 능원, 고기, 새순교회를 비롯한 15여 개의 오래된 교회가 그 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규모에 있어서 한국 제일이라는 지구촌교회, 그밖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조건 속에서 실험적이고 열성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있다는 점이 용인발전의 한 측면인 종교발전사의 특징을 보여준다. 지금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인구 100만쯤이 되는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수지읍의 교회변동은 예측하기 어렵다.

수지지역의 기독교현황을 설립연도별로 보면 1933년 신흥교회, 1961년 동원교회, 1962년 고기교회, 1965년 새순교회, 염광교회, 1970년 실로암교회, 1975년 수정교회, 1977년 로뎀교회, 1980년 만남의교회, 1981년 한동교회, 성광기도원, 1984년 섬김의교회(감리), 광교산기도원, 1985년 큰사랑교회, 1986년 성산교회, 1989년 제일교회, 1990년 수지광성교회, 산성교회, 1992년 이웃과함께하는교회, 1993년 남부중앙교회, 아름다운안디옥교회, 1994년 수지동부교회, 신소망교회, 지구촌교회, 1995년 대림교회, 동광교회, 목자교회, 샘솟는교회, 섬김의교회, 선민교회, 아성교회, 온사랑교회, 전원교회, 진실로교회, 화광교회, 1996년 사랑하는교회, 서원교회, 성서교회, 수지성결교회, 순복음수지교회, 언약교회, 열린문교회(예장), 예광교회, 찬양의교회, 행복한교회, 1997년

능력교회, 새중앙교회, 새창교회, 생명샘교회, 신봉교회, 은성교회, 재림교회, 1998년 대광교회, 목양교회, 생명수교회, 성지교회, 아름다운교회, 1999년 동부중앙교회, 동신교회, 새누리교회, 세계로교회, 소명교회, 동천리 수지교회와 상현리 수지교회, 열리는교회, 자유하는교회, 풍성한교회, 헬로쉽교회, 향유내음가득한교회, 2000년에 나눔의교회, 도언교회, 동산교회, 수지남서울교회, 수지아름다운교회, 수지임마누엘교회, 수지충신교회, 열방교회, 영락교회, 예수촌교회, 예승교회, 주계신순복음교회, 주아내교회, 주영광교회, 주용교회, 초대교회, 푸른초장교회, 2001년에 그리스도의편지교회, 겨자씨교회, 금곡교회, 수지명성교회, 수지사랑의 교회 등이 설립되었고, 그밖에 남서울제자교회, 로뎀나무교회, 벤엘교회, 샘터교회, 성광교회, 세계비전교회, 수지만능교회, 수지시온교회, 영성교회, 은혜교회, 정다운교회, 죽전순복음교회, 충인교회 등이 있다.

2. 불교

○ 현황

연번	단체명 (종파)	주 소	전 화	대 표 자		신도수	비 고
				성 명	연령		
1	관음사(태고종)	고기리 660	262-8666	송덕	55	300	
2	대원사(해동종)	성복리 393-1	262-0606	송산			
3	대한불교해동종총무원	성복리 393-1	263-1353				
4	미륵사(조계종)	동천리 680	262-2659				
5	보현정사(조계종)	상현리 산58		청하	41		
6	상현사	상현리 449-1번지					
7	서광사(조계종)	고기리 523	262-7351	남수명	57	100	
8	서봉사						
9	서봉사지	신봉리 산111					
10	지장사수지포교원(조계종)		266-6526~7	의선	35		
11	태봉암						

○ 서봉사지

구전에 의하면 광교산 자락에는 89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전하여지는데, 그중 서봉사지는 신봉리 광교산 111번지에 위치한다. 서봉사지는 고려 때 창건된 절터로서 사지의 규모가 큰데, 비각건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서봉사’라는 명문 기와조각이 나왔다. 이 절이 폐사된 것은 선조25년(1592년) 임진왜란 때로 전해진다. 이 절에는 보물 9호로 지정된 현오국사탑비와 비각이 있다. 이 비는 고려명종 15년(1195년)에 세운 것이고, 이 절에서는 불설예수십왕경, 인천안목, 불조삼경등 10여종의 목판장서가 간행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절터를 알리는 축대와 주춧돌, 탑신, 와편 등의 잔재만이 그 역사를 전하고 있다.

○ 대한불교 해동종 사단법인 해동자비원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모시고 원효대성 화정국사를 종조로 모시는데, 종지는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원효대성화정국사의 대승불교사상과 삼계유심의 이념을 구현 선교율을 수지선양하며 직지인심 견성 성불 전법 도생한다. 법당에는 석가모니불을 모시나 종전부터 석가모니불 이외에 불상을 본존으로 모신 사암에 있어서는 그 관례에 따른다. 소의경전으로는 금강경, 화엄경을 따른다.

본 종의 기원은 석가모니불의 기원 단기 1789년(서기전544년)으로 한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기원은 단기 2705년(고구려 소수림왕 2년 서기 372년)으로 가산한다. 중요연혁은 1993년 3월15일에 대한불교 해동종 창종발기인대회를 하고 1996년 5월 16일(1310주년 음력 3월 29일) 원효대성화정국사 열반일 추모 대제를 모신 이래 해마다 같은 행사를 한다. 그밖에 주요행사로는 석가탄신일과 출가일, 성도일, 열반일, 우란분절 행사가 있다.

중국요령성의 용담사와 자매결연 법회를 하고 길림성 조선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국내에서는 불우가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급식비를 지급하고, 특히 교통 장애인과 자녀를 위한 지원 등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역대임원으로는 원로원장 인현승려, 사정원장 능선승려, 불교예술원장 원표승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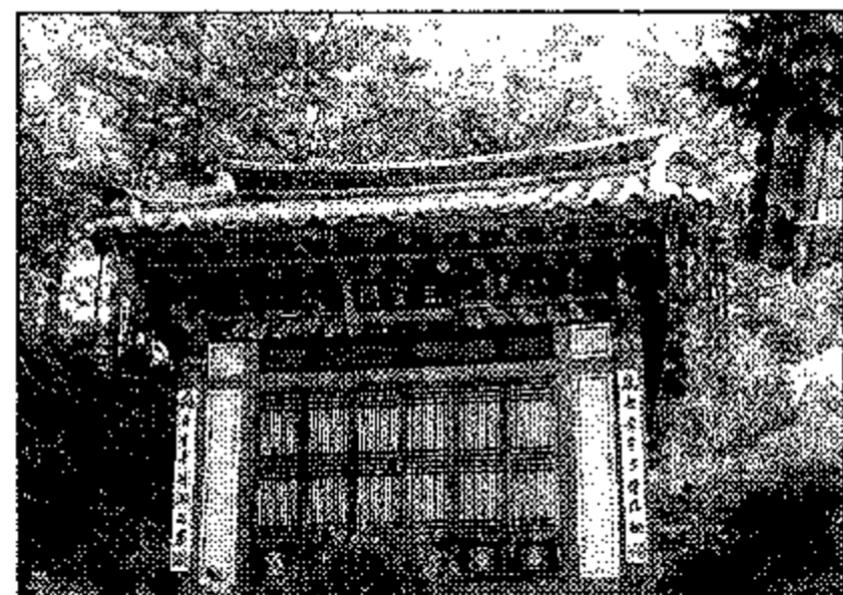
있고, 현재 임원은 종정 석봉승려와 대경원로원장, 송산총무원장, 법성부원장, 혜월총무부장, 진웅교무부장, 법운사회부장, 보성재무부장, 송명포교부장, 대명사정부장, 성타중앙종회의장, 청운부의장, 대원사정원원장, 백담연수원원장, 종영복지봉사원원장, 평일중앙포교원원장, 보광복지부장으로 구성되고, 교구종무원에는 서울교구종무원장에 혜상, 경기(인천)교구에 운담종무원장, 강원교구 송명, 충북교구 의성, 충남(대전)교구 혜천, 경북교구 덕암, 경남교구 현삼, 전남(광주)교구 옥용, 부산교구 법정, 대구교구 민택종무원장이 있다.

사단법인 해동자비원 산하 기관에는 해동종보, 경기불교대학, 해동지장회, 전국신도회가 있고 교세 현황은 125개 사찰에 승려 147명, 신도 99,054명 (2000년 기록은 사찰 145개, 승려 159명, 신도 121,142명)에 이른다.

○ 대한불교 해동종 총본산 대원사



대원사 범종각



대원사 삼성각



대원사 대웅보전



대원사 천불전

주지 송산승려가 1979년 10월에 수지읍 성복리 393-1번지에 190평을 매입하여 1980년 3월부터 불사를 추진하여 대웅전 15평, 삼성각 5평, 료사 15평을 건립하여 같은 해 음력 10월 15일 낙성식 및 점안법회를 봉행한 사찰인 당시 건물은 철거되었고, 현재의 대웅보전은 1984년 5월에 대웅보전 증축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986년 9월에 외5포 내7포의 고려

양식으로 총건평 30평을 완공하고 음력 10월 15일 낙성식 및 이운법회를 봉행하였다. 명부전은 불기 2532년 (1988년) 건평 15평 이궁으로 건축하였고, 삼성각은 1980년에 건립된 건물을 증축하여 1988년 이궁으로 7평을 완공하였고, 천불전은 1988년 8월에 이

궁으로 20평을 건립하여 1991년 완공, 료사는 1987년 4월에 시작 그해 10월에 45평을 완공, 범종각은 3칸 목재건물로 2층 총 건평 30평을 1994년에 완공, 1995년 범종 1500관, 범고, 음판, 목어 등을 설치 음력 10월15일에 낙성식 및 타종 법회를 봉행했다.

본 대원사 천불은 한국 소나무가 약 150년 정도 자란 나무로서 별목 또는 고사하여 그 뿌리가 땅속에서 50년동안 썩어 기름덩어리 관솔로 조성한 세계적으로 유일한 관솔 천불이고, 천불전에서 기도를 하면 동의보감에 써있듯이 관솔향으로 머리가 맑아지며 소화가 잘되고 신진대사가 잘 된다고 한다.

○ 지장사 수지포교원



지장사

조계종 포천 지장사의 수지포교원으로서 30년전 동진 출가한 의 선승려(35세)가 2001년 4월에 설립하였다. 6층건물의 6층에 입주한 포교당으로서 법당에는 아미타불좌상이 있고 좌우 협시보살은 관음 지장보살상이 있고 신중탱화가 있다. 현재 1000불 불사중이며 수지 지역 도시 포교원으로 법문 위주로 포교하고 있다. 법회로는 경전강의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초하루 산중기도, 초사흘 지장기도, 연말에는 포천 독거노인 및 고아원 양로원 돋기, 5월가정의 달에 경로잔치, JTS북한어 린이돕기 및 이디오피아기아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서광사(조계종)



서광사 대웅전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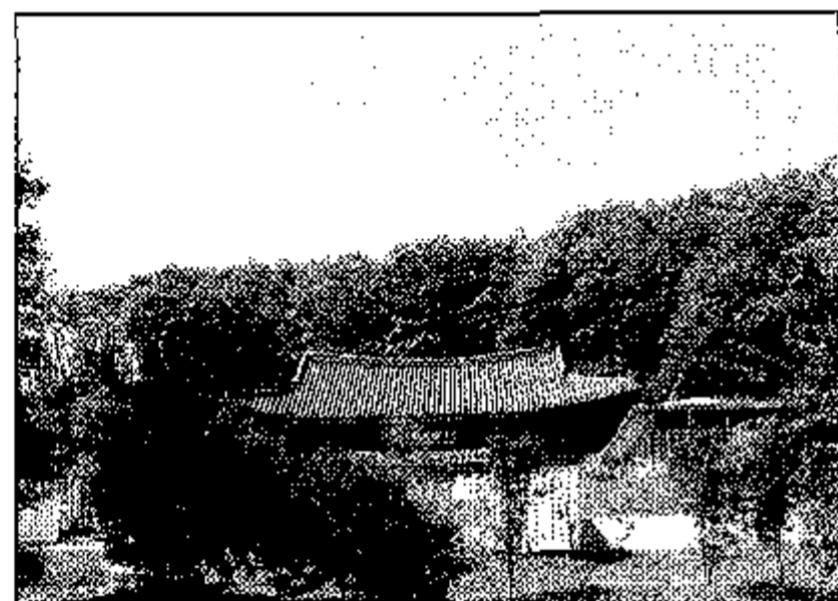


서광사 요사채

온사 춘성승려로부터 비구계와 사미계를 받은 주지 남수명(57세, 법남 40세)승려가 1993년에 창건한 사찰이다. 현재 대웅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산신각은 이미 완공되었다.

법당 좌측에 요사채가 있고, 현재 공사로 인해 법당 지하층 중앙에 석가모니불과 좌측 지장보살탱화, 우측 신중탱화와 범종이 배치되어있다. 주요 행사로는 초하루, 보름, 초파일 행사를 하며, 신도수는 100여명이 신앙활동을 한다.

○ 미륵사



미륵사



미륵사 법당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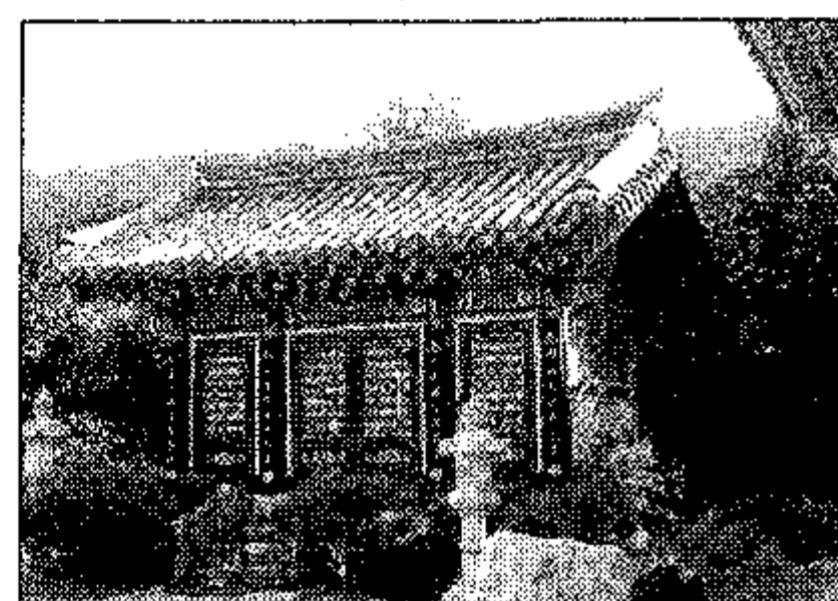


미륵사 석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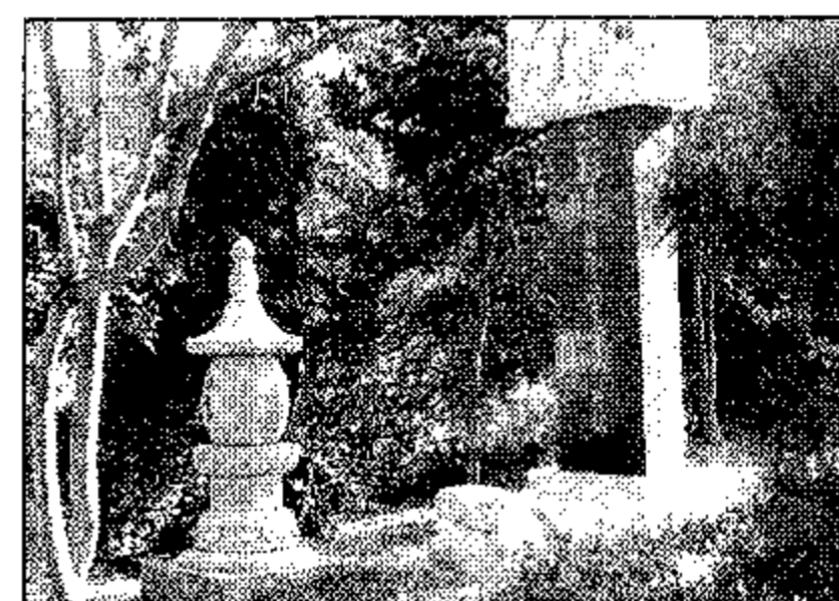
동천리 680번지에 위치한 조계종 사찰로서 법당은 대적광전으로 주불이 비로자나불상좌상 화염광배, 좌우 협시보살 입상이 안치되어있고, 배면에는 천불상과 지장보살, 좌측 지장

보살좌상이 있고, 오른쪽 보살입상, 왼쪽면 영가, 완전 좌측 신중 목조탱화, 산신입상, 후산신탱, 칠성탱, 아미타불상좌상 등이 모셔져 있고, 법당 앞에는 2기의 화려한 석등이 있다. 실내 범종, 수미산, 법상이 배치되어 있다. 현재 일부 건물이 공사 중에 있다.

○ 관음사



관음사 산신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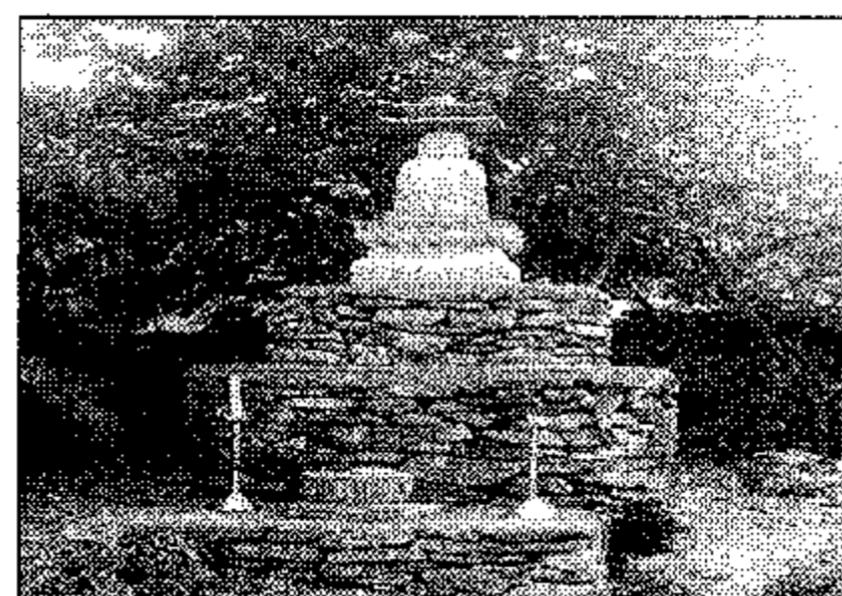
관음사 부도탑과 행장탑

태고종사찰로서 광교산, 백운산, 청계산 자락에 위치한다. 이 사찰은 신도수가 300명인 약사도량으로서 서봉은사로부터 비구니계를 받은 송덕(55세)승려가 관음행보살과 함께

1978년에 창건한 사찰인데, 승려와 동갑인 관음행보살이 살림을 맡아한다. 1200평대지에 30평의 대웅전과 연건평 120평의 선방과 요사채가 있다. 이 마을에는 눈사태와 가



관음사 대웅전



관음사 미륵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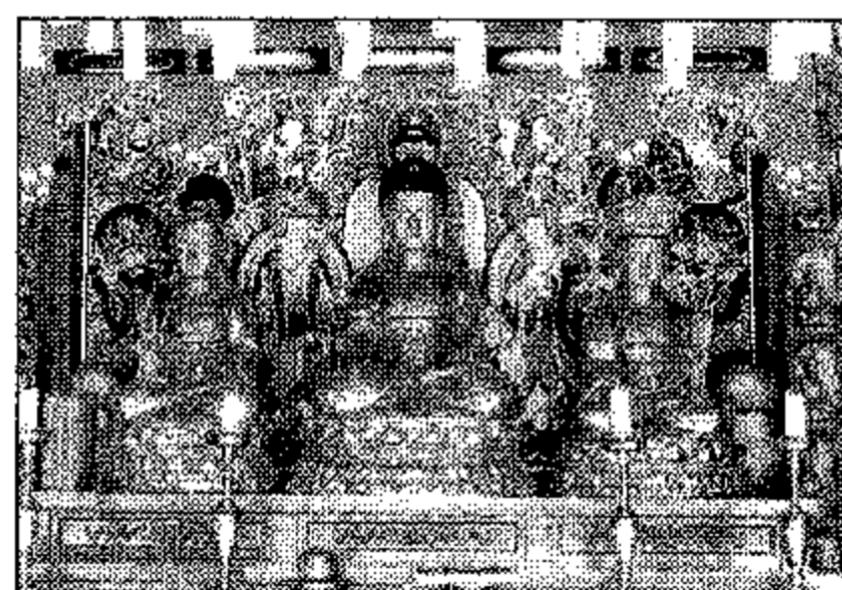
축이 계속 죽자 주지승려가 산제를 지내고나서 안정된 적이 있다고 한다. 대웅전은 금단청으로 5척크기의 본존 아미타불상, 좌우협시보살, 후불탱화, 지장전에는 좌측 지장탱화,

좌측벽면 지장보살입상, 우측칠성탱화, 우측 벽면 신중탱화가 있다. 산신각에는 산신 3분이 호랑이를 타고있는 조상이 있다. 마이산탑사 모양의 13개 탑과 약 2자크기의 미륵불상과 박서봉 대종사 부도 및 행장비가 있다.

○ 보현정사



보현정사 대웅전



보현정사 법당내부



보현정사 산신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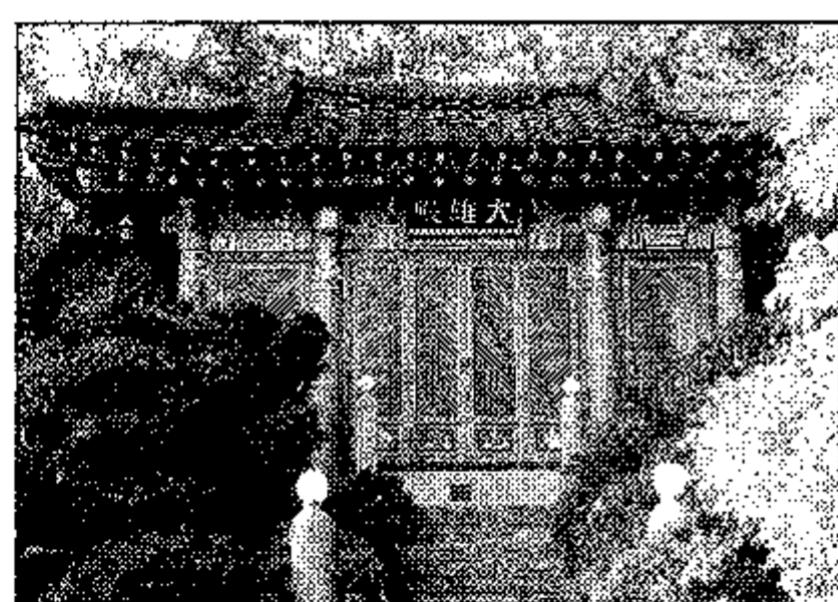


보현정사 산신각 3산산령탱화

상현리 산 58에 위치하고 있는데 태고종 성불사에서 조계종으로 바뀐 사찰이다. 1967년 창건주 장영진 승려가 창건하고 1998년 주지 청하(41세) 조계종 승려가 취임했다. 300평의 대지에 10여평의 아담한 금단청의 대웅전과 산신각을 가진 사찰이다. 대웅전에는 중앙 아미타불, 우측 지장보살, 좌측 관음보살좌상과 후불탱화와 좌우 아미타천불, 우측벽 신

장탱화와 실내 범종이 있다. 산신각에는 세분의 산신탱이 있다. 이 사찰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포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월간 ‘보현’이라는 포교잡지를 발행한다. 성동구치소 재소자를 위한 법회를 매월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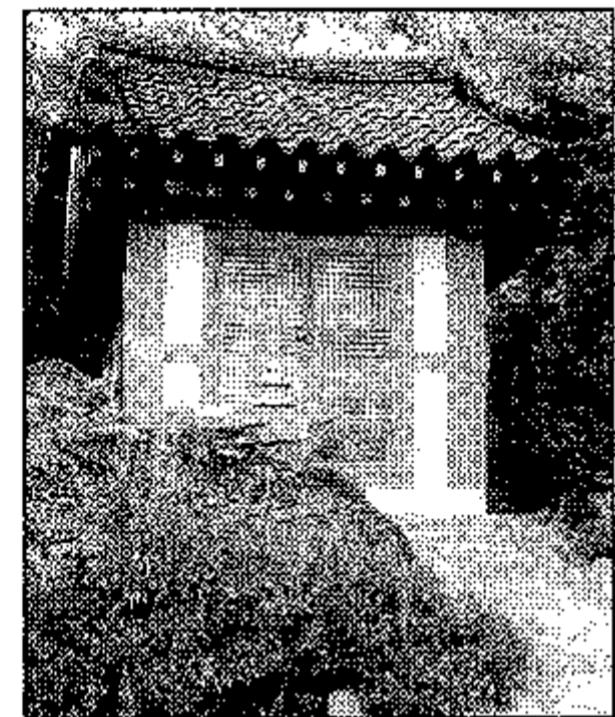
○ 태봉암



태봉암 대웅전



태봉암 요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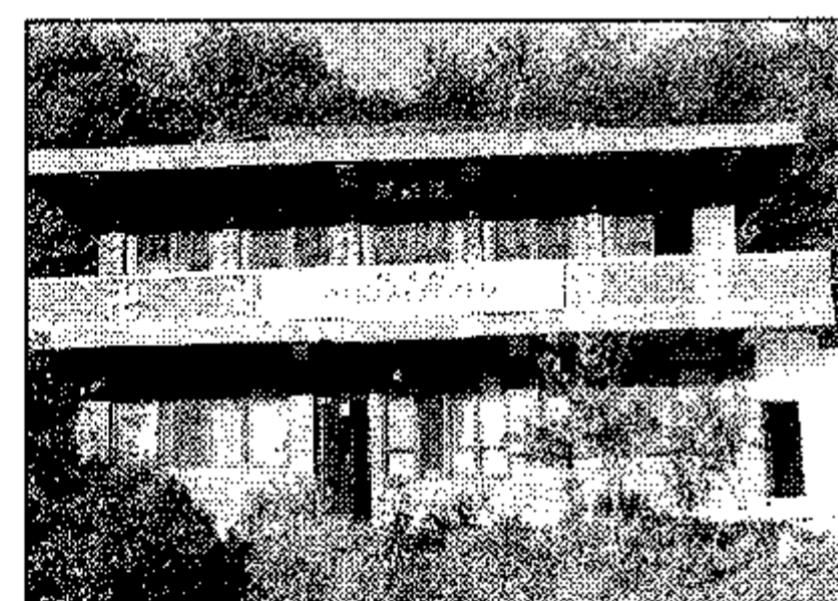


태봉암 산신각

1980년에 창건주 김순희보살이 초가 사찰로 창건하였고 현재의 15평 대웅전은 주지 최창호(58세)거사가 증축하였다. 산신각과 요사채와 그외 식당과 회의실이 있다. 대웅전에는

주불 석가모니, 좌우협시 지장보살, 관음보살이 배치되어있고, 대웅전벽화는 인왕산이 그려져있다. 산신각에는 독성탱, 산신탱이 있다. 이 사찰은 환자를 돌보는 약사도량인데, 현재 도시개발 불으로 사찰을 옮겨야할 상황이다.

○ 서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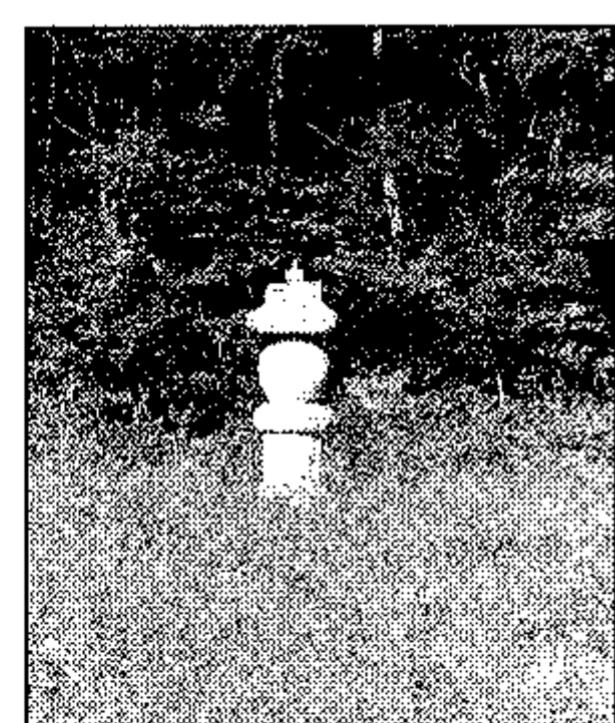
설립전



산신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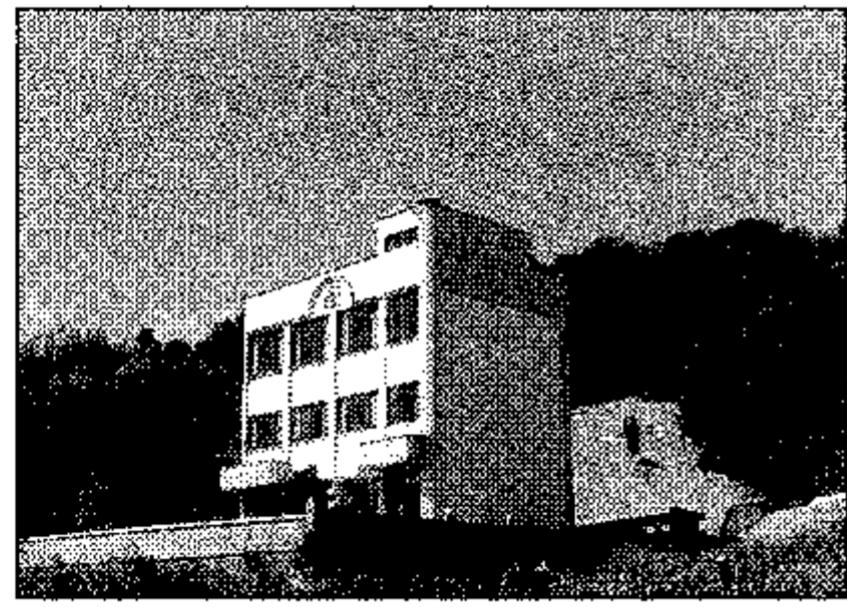
2층건물의 사찰로 1층이 요사채 및 사무실이고, 2층이 법당 ‘설법전’이다. 법당에는 3자반 크기의 본존 석가모니불과 우 지장, 좌 관음협시 보살이 있고 후불탱화, 신중탱화와

실내법종과 피아노가 있다. 삼선각에는 산신령조상, 독성탱화, 칠성탱화가 배치되어있다. 천일 지장 기도사찰이다.



부도

○ 상현사



상현사

1998년 청산승려의 상자 능현(44세)승려가 상현리 449-1번지 독바위 마을에 창건한 사찰이다. 신도시 포교를 목적으로 300여평의 대지에 연건평 3층 160평 건물을 포교당 형태로 지은 사찰이다. 3층의 법당은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좌우천불, 우측지장보살, 관음보살과 피아노가 놓여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 좋은 인연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며’ 설립한 포교당이다. 월간 ‘좋은 인연’이라는 포교지를 발간하고 금강경 강설과 지장경 강설 법회를 한다.

○ 대종교현황

연번	단체명 (종파)	주 소	전 화	대 표 자		신도수	비 고
				성 명	연령		
1	경천암(대종교)	신봉리 455-1		박철우		300	

○ 대종교 경천암



경천암(대종교)

신봉리 456-1에 위치한다. 신성종(58세) 전무에 의하여 1995년 설립되었고 2001년 현재 종단으로 귀속되어 박철우 전무가 주석하고 있다. 법당의 내부에는 단군화와 그 배경에 백두산사진이 배치되어 있다. 좌우측에는 천부경 삼일신고각사의 두루마리등이 족자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그외에 북이 있고 신도 규모는 300여명이다. 그리고 주요행사에는 경일(敬日)이 있고, 매주 일요일을 한배 겸계 경배(敬拜)드리는 날로 한다. 경배식(敬拜式)은 경일과 특정한 날에 올리는 신앙 의식이다. 개천절(開天節 : 한배겸계서 강세降世·개국開國하신 날)로 음력 10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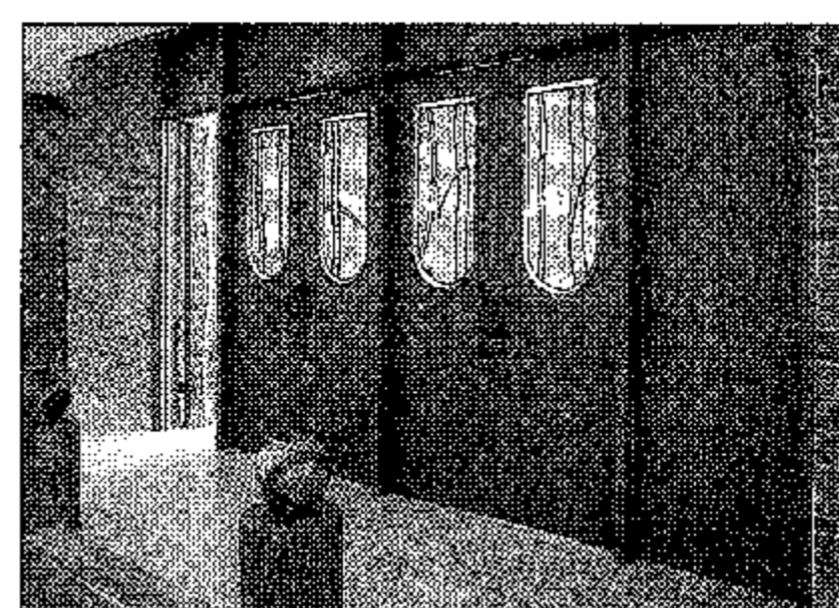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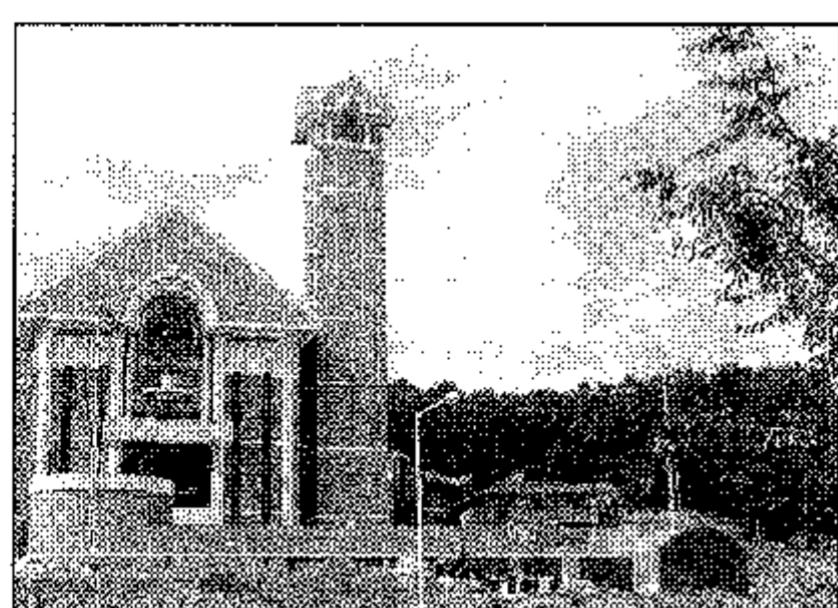
(상달상날 : 개천4406/서기 1949년부터)에는 선의식(示賣儀式)을 봉행하고, 양력 10월 3일에는 경하식을 봉행하고 있다. 그리고 어천절(御天節 : 한배검께서 한율의 본자리로 오르신 날), 음력 3월 15일 중광절(重光節 : 홍암대종사께서 대종교의 문을 다시 열으신 날), 음력 1월 15일(대보름날) 가경절(嘉慶節 : 홍암대종사께서 조천(朝天)하신 날) 음력 8월 15일(한가위날)의 4대 경절에 행사를 봉행하고 있다.

3. 천주교

○ 현황

연번	단체명 (종파)	주 소	전 화	대 표 자		신도수	비 고
				성 명	연령		
1	수지성당	풍덕천2동436-5번지	265-2014	김한철			
2	효주아네스성당	죽전리 882	262-7414	김일우			
3	수지성모교육원	동천리산6번지	263-4222				
4	손골성지	동천리 손골 734	263-1242	김한철			

○ 수지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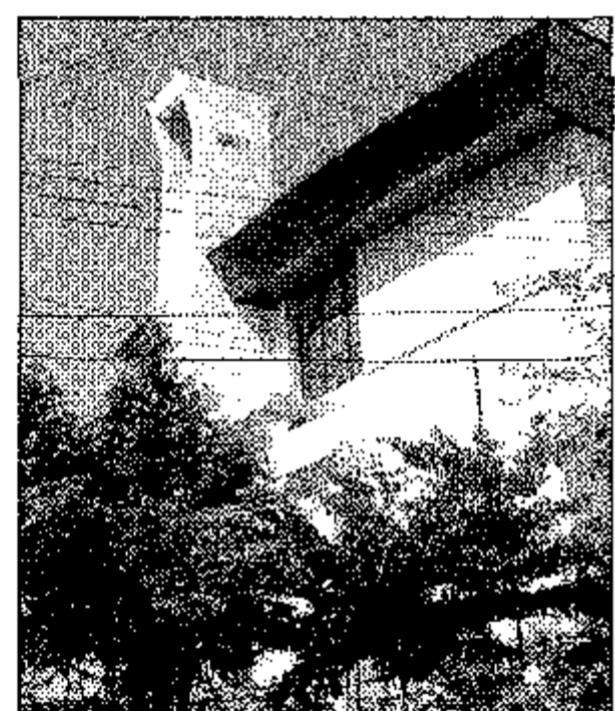


1994년 2월 풍덕천2동 436-5번지에 설립되었다. 1999년 8월 15일 신축 건물에 입주하였고, 총 재적 신자수는 9,543명이다. 미사 참례율이 35% 이상으로 매주 보통 3,500여명이 미사에 참여한다. 현 주임신부 김한철(율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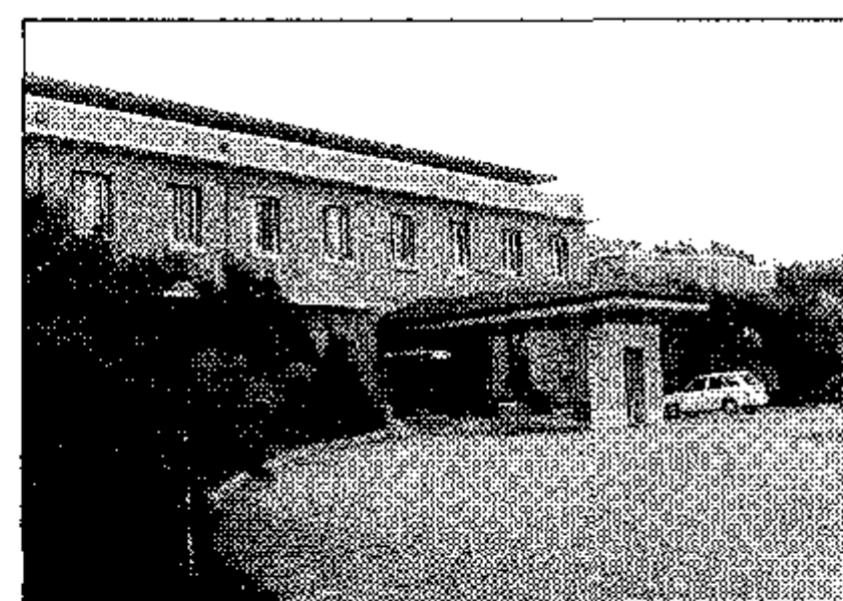
노) 신부와 최규화 보좌신부 외에 2명의 수녀등이 사목활동을 한다. 교구 공동 활동으로 구역미사와 청소년을 위한 주일학교, 교사회, 자모회, 청년연합회가 있다. 그밖에 교구장 5대 중심 사목 목표인 성서사목, 소공동체 사목, 복음화·선교사목, 간부 육성 사목, 청소년사목을 실천하고, '개인과 단체별 신심·활동강화, 지역 선교활동 강화, 성전신축마무리'를 중단기 목표로 한다. 특히 성당 건물을 신축하여 2002년 말에 축성식을 할 예정이다.

○ 효주아네스성당



1998년 8월 죽전리 882에 김일우사제가 교구청 임명을 받아 수녀 2명과 수도자 1명을 초대하여 시작하였다. 대지 956평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을 포함해서 건평 930평에 예배실, 회의실, 사무실 외에 숙소 2개 동이 따로 있다. 신도회는 약 300명으로 구성돼있고 주로 근로자를 위한 사회복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체육 대회를 열어 천주교신자가 아닌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천주교 홍보활동을 한다.

○ 수지성모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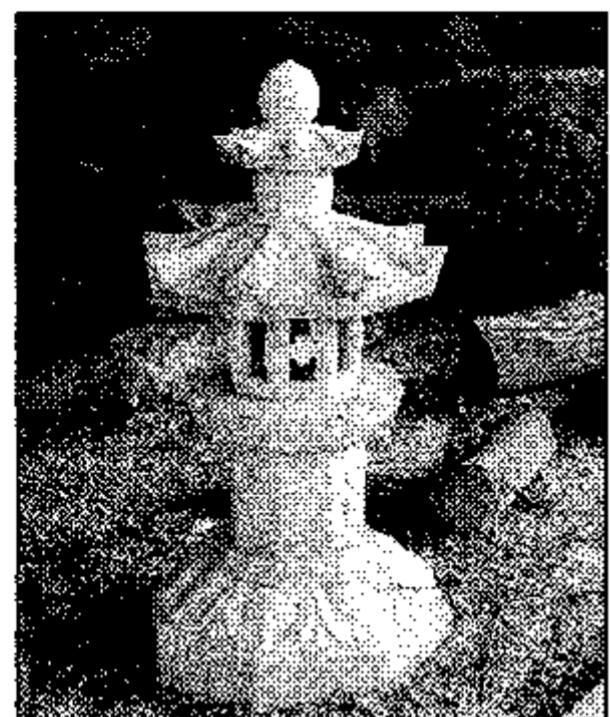
수지성모교육원(본관)



수지성모교육원

동천리 산6번지에 소재한다. 수녀를 양성하는 수녀회인 '피정지도·기도의 집'으로 1991년 용인에 설립되었다. 이 성모 교육원의 뿌리는 1932년 평양 지목구에 창립된 한국의 첫

방인 수녀회이다. 방인 수녀회란 외국에서 진출한 수도회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창립



수지성모교육원 석등

된 수녀회를 말한다.

1924년 평안도 지역에 진출하여 선교활동을 하던 미국 메리놀 외방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언어 소통과 문화 이해에 대한 어려움으로 한국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방인 선교사가 절실히 깨닫고 방인 수녀회 창립을 준비하게 되었고, 특히 제 2대 평양 지목구장 요한 모리스(J. E. Morris, M.M.) 몬시뇰이 수녀회 창립을 위해 평양 상수구리에 한옥 두 채를 매입하고 5명의 지원자를 받아서 메리놀 수녀 3명에게 양성 책임을 맡기고(수녀회가 정식으로 창립 되려면 기존 수녀회가 그 수녀회의 종신 서원자가 나올 때까지 양성을 맡아 주어야 한다) 창립미사를 봉헌하면서 수녀회가 시작됐다.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창립된 본회는, 한민족 복음화를 촉진하고 민족을 위한 여성들의 각성이라는 민족사적이고 교회사적인 의의를 낳았다. 현재는 540여명 규모(수련소 포함)의 큰 수녀회로 성장하여 통일 후에는 다시 평양 교구에 뿌리 내릴 것을 바라고 있다. 본 회는 1938년 2월 18일에 교황청으로부터 수녀회 창립 및 회헌을 인준 받은 후 메리놀 수녀회 소속 한국인 장 악니다(정온)수녀가 1941년 미국인 선교사 강제 추방령으로 메리놀 선교사 전원이 떠날 때 원장으로 임명되었다가 1949년 제5대 평양 교구장 홍 용호 주교가 납치되고 수도회 건물 및 재산을 몰수당하며 회원들이 강제로 해산되는 가운데 1950년 장 악니다 수녀도 공산당에게 피납된다. 평양이 탈환되었다가 국군이 갑작스럽게 후퇴하면서 다시 모여 수도생활을 하던 회원 30명중, 일부가 남하하여 부산에서 피난생활과 함께 다시 수련소를 재개하고 입회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남한에서의 새로운 시기가 시작된다.

1955년에 서울 흑석동(현재 명수대 성당 자리)으로 본원을 이전하고 1964년에 현재 위치인 성북구 정릉으로 옮기게 되면서 국내외 본당, 의료, 사회복지, 교육 사도직 등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1969년에는 춘천에 있던 수련소도 정릉 본원으로 통합되었다. 1972년 창립 40주년을 맞으면서 성서연구를 본격화하여 가톨릭 성서모임을 시작하고, 1982년 수도회 50년사를 발간하였고 근래에는 북방과 외방 선교에도 주력하고 있다.

○ 손골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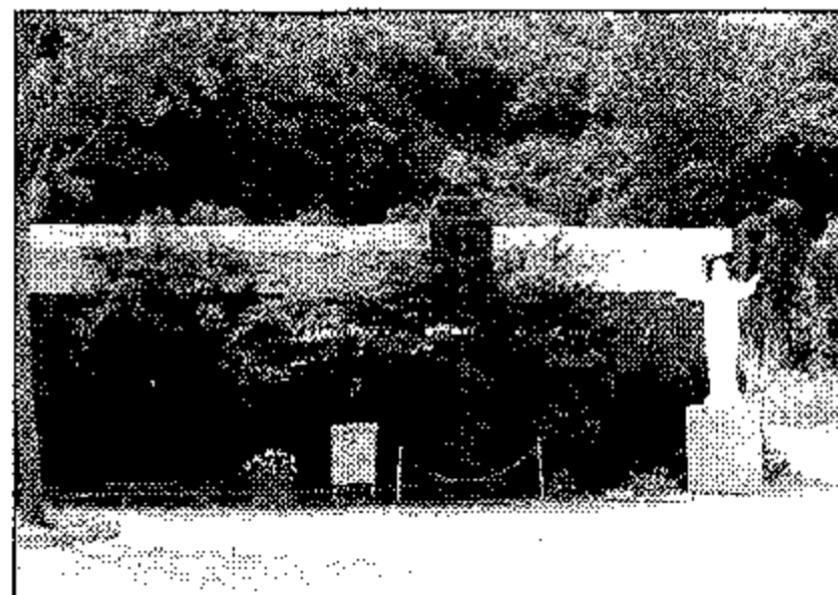
성도리헨리꼬신부상



14처



성지주변 예수상



성도리헨리꼬신부 순교비 전경

손골성지는 동천리(손골) 734번지에 위치하는데, 손골(蓀谷)은 160여 년의 전통을 가진 교우촌으로서 성 김(도리) 헨리꼬 신부의 전교 유적지이다. “향기로운 골짜기”라는 뜻을 지닌 손곡(蓀谷)의 형성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기해박해(1839)와 병인 박해(1866)를 피해 서울과 인근지방에서 숨어들은 신자들이 이룩한 교우촌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손골은 특히 이요한의 삼대가 병인박해시 피신하여 신미년(1871.3.16)에 순교하였고, 손골성지는 폐롱 신부(1857년), 조안노. 칼레 신부(1861년), 성 오(오매트르) 신부(1863년)가 활동하였고, 특히 선교사인 성 김(도리) 헨리꼬 신부가 1865년 이후 전교하다가 병인박해 당시 배교자의 밀고로 체포(1866.2.27)된 곳이며 그는 군문 효수형을 받고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한국의 103위 순교성인 대열에 들은 그의 유해는 절두산 지하성당에 안치되었으나 그 중 일부를 분배 받아 손골성지에 안치하였다.

4. 기독교(개신교)

○ 현황

연번	단체명 (종파)	주 소	전 화	대 표 자		신도수	비 고
				성 명	연령		
1	갈릴리교회	풍덕천리 924	262-6096	하현선	45	200	
2	겨자씨교회	죽전리 89-1	262-4461	정선웅	36		
3	고기교회	고기리 200	262-5522	안홍택		50	
4	광교산기도원	고기2리 633	261-0139	유영빈	64		
5	그리스도의편지교회	풍덕천리 1156	266-9191~3	송풍호			
6	글로리아교회	죽전리 589-11	262-9441	강영창			
7	금곡교회	풍덕천리 722-7	266-1457	박신규	54		
8	나눔의교회(예장)	죽전리 865-1	266-3007~8	박정웅		40	
9	남부중앙교회	풍덕천리 399-26	261-1004	김찬섭	50		
10	능력교회	풍덕천리 682-13	263-1006	이준희	50	35	
11	대광교회(감리)	풍덕천리 482-1	262-8806	유광신	52	600	
12	대림교회	풍덕천리 82-14		장시관	35	20	
13	도언교회	상현리 96-1	264-9268	김민철	38	30-40	
14	동광교회	풍덕천리 668-2	261-0601	안광목	46	60	
15	동부중앙교회	죽전리	266-3441	김동일	52	10	
16	동산교회	풍덕천리 240-3	263-1191	김재남	49	150	
17	동신교회	상현리 544	266-0095	이종석	46	80	
18	동원교회	동천리 366-3	263-0691	김창기	45	500	
19	동천교회	동천리 371-11	262-6298	이영근	49		
20	로뎀교회	죽전리 497-5	263-8456	이용길	55		
21	만남의교회	동천리 산 152-18	265-0037	정평수	58	500	
22	목양교회	죽전리 453-1	263-6979	문기식	43	100	
23	목양교회(감리)	동천리 산 10-3		유관지			
24	목자교회	죽전리 1003-68	262-8214	김동환			
25	사랑하는교회	풍덕천리 1동 703	263-5247	고성원	45	40	

연번	단체명 (종파)	주 소	전 화	대 표 자		신도수	비 고
				성 명	연령		
26	산성교회	죽전리 72-1	261-1950	황규식	49	500	
27	산소망교회	동천리 284-3	261-2123	문명식			
28	새누리교회	풍덕천리 1043	264-8894	김영규	42	130	
29	새사랑교회	죽전리 190-2	261-0316	김상오			
30	새순교회(침례)	죽전리 367-1	266-0876	정선완		50	
31	새창교회	풍덕천리 705-3	263-7942	이재선	42	60	
32	샘솟는교회	죽전리 500	264-2531	윤준표	49	30	
33	생명샘교회	풍덕천리 703-4	263-3646	손재락	43		
34	생명수교회	동천리 180-12	264-5993	이상현	50	15	
35	서원교회(예장)	상현리 64-2	262-7037	김창섭	49	50	
36	선민교회	성복리 159	262-4805	유영식	53	70	
37	섬김의교회	풍덕천리	262-0062	윤명수	44	100	
38	섬김의교회(감리)	죽전리 484-13	262-1956	조병돈			
39	성광기도원	신봉리 750-1	262-1445	배형국	63		
40	성복교회	성복리 289-5	262-4651	송기성			
41	성산교회(예장)	동천리 325-13	262-9181	한상필	54	50-60	
42	성서교회	죽전리 153-6	265-4004	장로학	50	500	
43	성지교회(예장)	죽전리 184-7	264-4494	이용일			
44	세계로교회	풍덕천리 504-10	265-9482	김기일	59	80	
45	소명교회	죽전리 306		안기준	56	50	
46	수정교회	풍덕천리 699	265-5092	이종식	56	350	
47	수지광성교회	풍덕천리 1101	265-9911~2	안현수		250	
48	수지교회(예장)	상현리 107	262-7887	이태종	43	80	
49	수지교회	동천리 196	264-4203	유정열	45		
50	수지남서울교회	풍덕천리 1001-3	264-9188	주금용	42	400	

연번	단체명 (종파)	주 소	전 화	대 표 자		신도수	비 고
				성 명	연령		
51	수지동부교회(예장)	죽전리 475		김한복			
52	수지명성교회(예장)	성복리 90	266-5591	김범식			
53	수지사랑교회	상현리	265-1244	안기환	55	20	
54	수지새중앙교회(예장)	죽전리 472-6		민화규	39		
55	수지성결교회	풍덕천리 716-11	263-4005	정준택		10	
56	수지아름다운교회	풍덕천리	265-5491	송원근	41	100	
57	수지영락교회(예장)	상현리 360-4		김홍구			
58	수지임마누엘교회	죽전리 1003-527	266-2697	김재호	49		
59	수지충신교회	상현1리 동보아파트상가	263-3460	김성기			
60	순복음수지교회	풍덕천리 1150-4	262-2663	박요한		400	
61	신봉교회	신봉리 54	262-1644			80	
62	신소망교회(순복음)	동천리 284-3	261-2123	문명석	56	200	
63	신흥교회	풍덕천리 1106	262-9197	윤갑율			
64	실로암교회	풍덕천리 69-56	261-3555	최성대	49	130	
65	아름다운교회	풍덕천리 704-3	262-8291	연재원	39	60	
66	아름다운안디옥교회	죽전리 1832	265-1757	김경섭	48	250	
67	아성교회	풍덕천리 711-18	262-6533	이병열	40	150	
68	언약교회	풍덕천리	261-5695	임순자			
69	열리는교회(예장)	죽전리 414		김자종			
70	열린교회(예장)	상현리 194-5	263-9887	양명두		100	
71	열린문교회		263-5939	윤여성			
72	열방교회	죽전리 1003-486	265-6187	안병만			
73	염광교회	동천리 419-1	262-5913	황인수	47		
74	영락교회	풍덕천리 3007-1	265-9191	배성식	42	300	
75	예광교회(예장)	죽전리 428-1	262-3327	조은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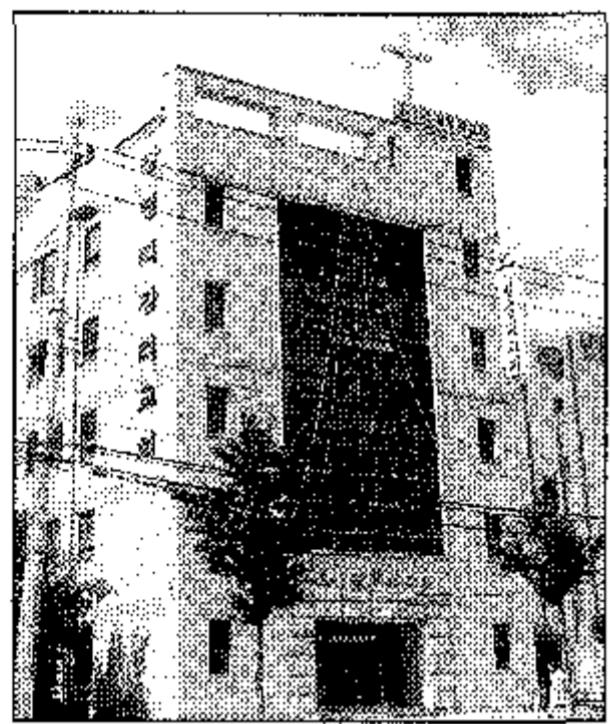
연번	단체명 (종파)	주 소	전 화	대 표 자		신도수	비 고
				성 명	연령		
76	예수촌교회	풍덕천리 704-6	263-8273	곽승연	35		
77	예승교회(예장통합)	풍덕천리 1034	264-7933	이승호	45	80	
78	예일교회(예장)	풍덕천리 664		박태규			
79	온사랑교회	풍덕천리 일성빌딩	262-1445	이광진	44	20	
80	은성교회	성복리 432-1	261-6128	원종진	43	15	
81	이웃과함께하는교회	풍덕천리 687-2	26	김영한	50	200	
82	자유하는교회	풍덕천리 239-3	265-1491	임종수		70	
83	전월교회	풍덕천리		박선규	50	400	
84	재림교회	풍덕천리 700-2000	261-4495	김인상	40	60	
85	제일교회	상현리 385-1		박경남	48	200	
86	제자교회	풍덕천리 193-8	266-0236	선우건	45	80	
87	조은교회	풍덕천리 682-7	261-6696	오봉기	47		
88	주계신교회(순복음)	죽전리 484-14	263-9191	문철수	53	80	
89	주아내교회	풍덕천리 668-2	261-4770	금주오	41	30	
90	주영광교회	풍덕천리 737	264-4243	이전세	44	20	
91	주용교회	죽전리 8831-1	263-1997	이용교	43		
92	지구촌교회(침례)	신봉리 1-1	264-9191	이동원		200	
93	진실로교회(예장)	풍덕천리 51-4	262-5018	원인식	45	50	
94	찬양의교회(예장)	죽전리 513-7		박찬식			
95	초대교회	풍덕천리 675-8		조제혁			
96	큰사랑교회	고기리 478		김기한	46		
97	푸른초장교회	풍덕천리	265-9195	김용은	44	30	
98	풍성한교회	풍덕천리 504-9	265-3217	양바울	47	20	
99	한동교회(예장)	동천리	261-0701	김천기			
100	행복한교회		264-8291	김형수	45	50	

연번	단체명 (종파)	주 소	전 화	대 표 자		신도수	비 고
				성 명	연령		
101	향유내음가득한교회	풍덕천리 665	262-1490	고경률	39	20	
102	호산나교회	풍덕천리 702	262-1004	나인권			
103	화광교회(예장)	풍덕천리 1014	263-	윤호균			
104	헬로쉽교회	풍덕천리 182-1	262-3927	김요한	47	30	

○ 수지기독교연합회

수지지역의 기독교 연합회는 1993년에 성산교회 대표 한상필목사를 초대회장으로 수지읍내의 일부 교역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비영리 종교단체이다. 매년 참여교회 대표들이 회장직을 번갈아 가면서 맡고 있는데 2001년에는 70~80여개 교회들이 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교파를 떠나서 수지지역 복음화와 문화를 이끌어가려는 목표를 갖는 기독교회 단체다. 교회대표들이 매년 1월에 정기총회를 갖고, 분과별로 임원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역대 회장에는 1993년에 초대 성산교회의 한상필목사, 2대 죽전교회의 김만구목사, 3대 수지중앙교회의 김영환목사, 4대 수지제일교회의 박경남목사, 5대 수지로교회 정희길목사, 6대 성산교회 한상필목사, 7대 갈릴리교회의 박선규목사를 거쳐서, 현재는 회장을 수지동광교회의 안광모목사가, 부회장은 세계로교회의 김기일, 선민교회의 유영식, 산소망교회의 문명석, 한동교회의 김천기목사가, 총무직은 실로암교회의 최대성목사가 맡고 있으며 그외 부총무, 서기, 회계업무를 여러 교회대표들이 분담하고 있다. 연합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안내하는 인쇄물을 발행하여 수지지역 교인들끼리 서로 협력하며 사는 길잡이를 제공하고 있다.

○ 갈릴리교회(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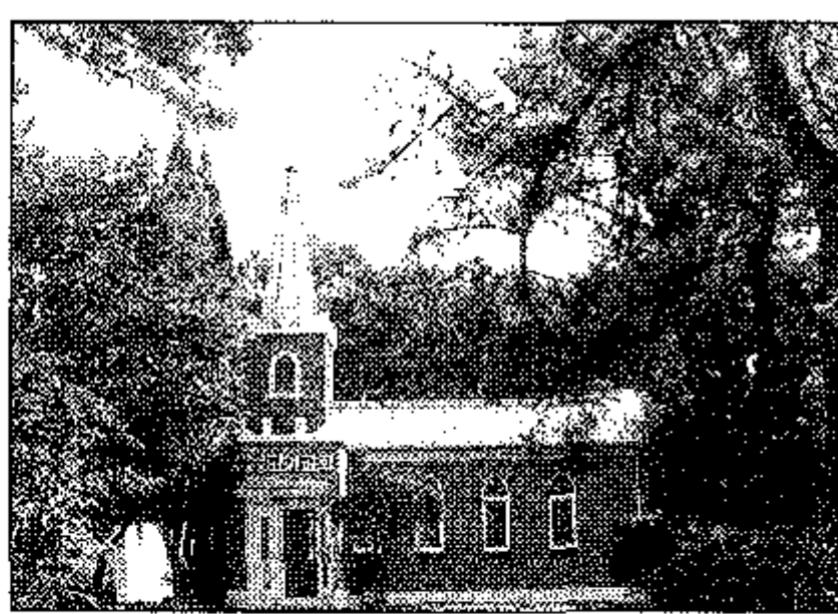
풍덕천리 924번지에 위치하는 이 교회는 1995년에 창건되었고 2000년 5월부터 하현선(45세) 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112평대지에 연건평 420평 규모로 담임목사 외에 전도사 3명, 장로 5명이 신도 200여명, 청년부 15명, 유초등부 60명과 목회를 한다. 특히 여성합창단 30명이 군부대나 교도소를 위문하는 ‘문화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 합창단이 삼성프라자에서 주최한 공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 겨자씨교회



2001년 7월에 죽전리 89-1번지 상가건물 45평에 정선웅(36세) 목사가 설립한 교회다. 이 교회는 ‘가장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듯이’, 이러한 겨자씨의 꿈을 갖는다.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특히 노년부 모임을 중하게 생각하여 경로대학, 레크레이션을 한다.

○ 고기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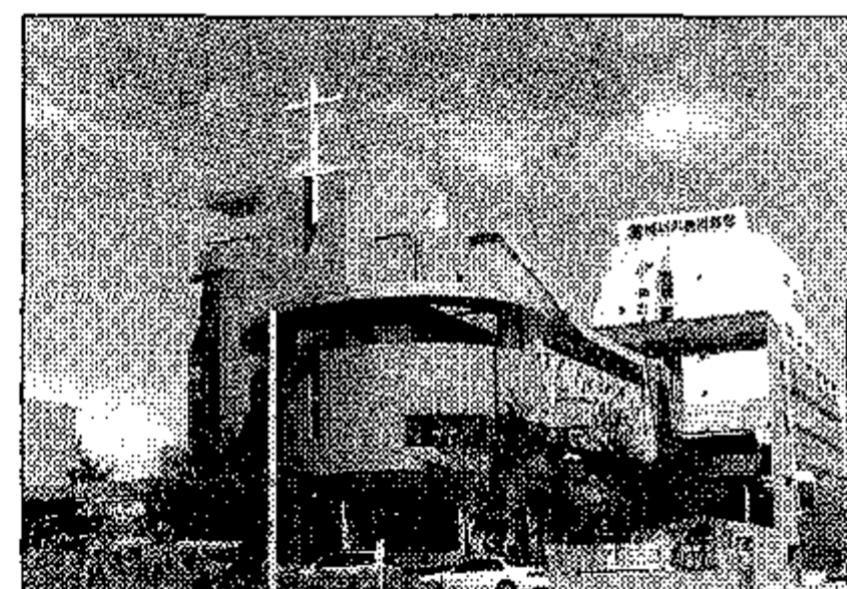


1962년경에 설립되었고 고기리 200번지에 위치한다. 초대 김동건목사, 2대, 3대 김동선목사, 현재 안홍택목사가 4대째 담임목사다. 안목사는 1990년에 부임하여 전도사 1명과 함께 신도 50여명, 중고등부 10명, 유초등부 25명과 목회를 한다. ‘한 알의 밀 알이 되자’는 교회표어를 지향하며, 봉사활동으로 독거노인 반찬만들어주기, 결손가정 돋기를 한다.

○ 광교산기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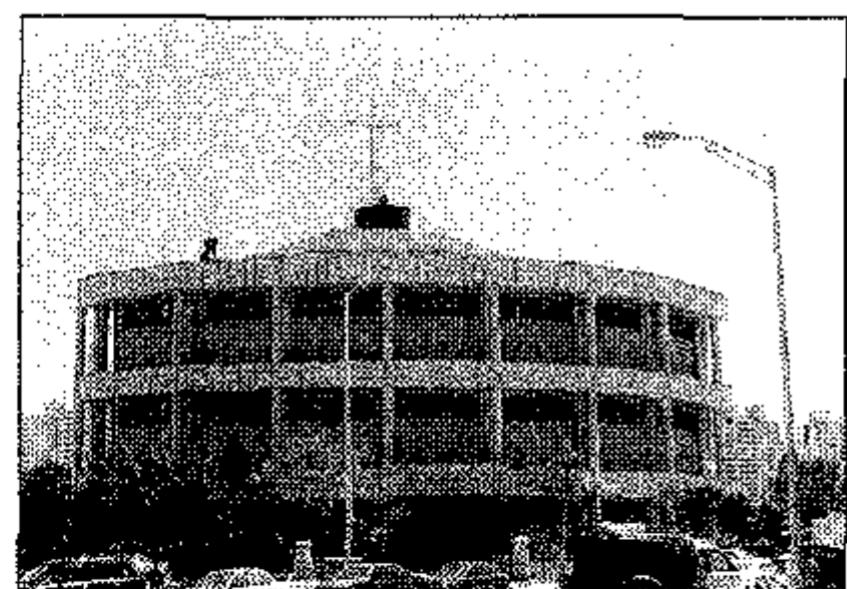
1984년 3월에 유영빈(64세) 목사가 책임자로 임당한 기도원이다. 고기2리 633번지에 위치한 이기도원은 전체면적 6000여평에 146평규모의 예배당과 수양관, 샤워실 및 식당 등 여러 시설이 갖춰져 있다. 봄, 여름, 겨울에 집회가 있으며 계절마다 이용자는 약 300~400여명에 이른다. 서울관악구 신림동의 대한예수교장로교인 동산교회(신도수 3500명)에 속한 기도원이다. 성년교인은 물론 청년과 아동들의 수련회를 진행할 500여 평의 수련회장을 2002년 5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 그리스도의편지교회



풍덕천리 1156번지에 위치한다. 1991년부터 분당에서 교회를 하다가 송풍호(48세) 목사가 2000년 4월 수지에로 옮겨왔다. 450평대지에 건평 1000평의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현대식건물을 교회로 사용한다. 신도수는 150명 정도이고 특히 아동선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학전 아동 150명 정도가 '하바놀이학교'에 다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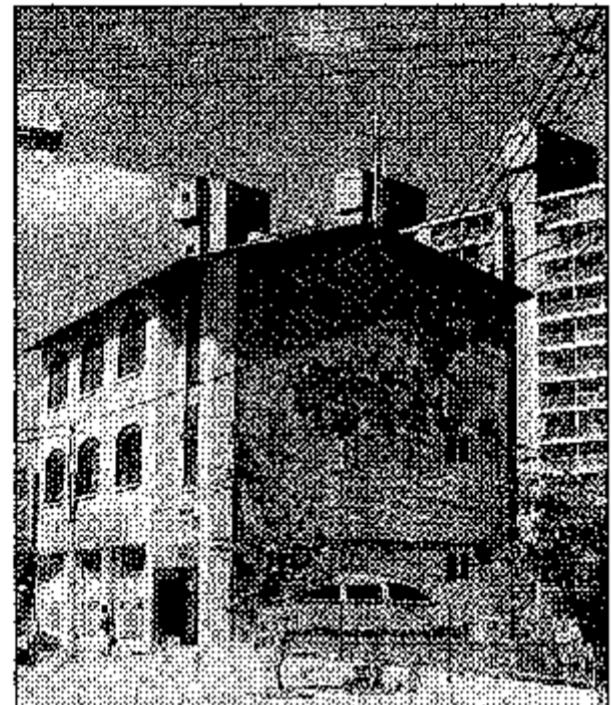
○ 글로리아교회



죽전리 589-11에 위치한다. 현재 담임목사는 강영창 안요셉목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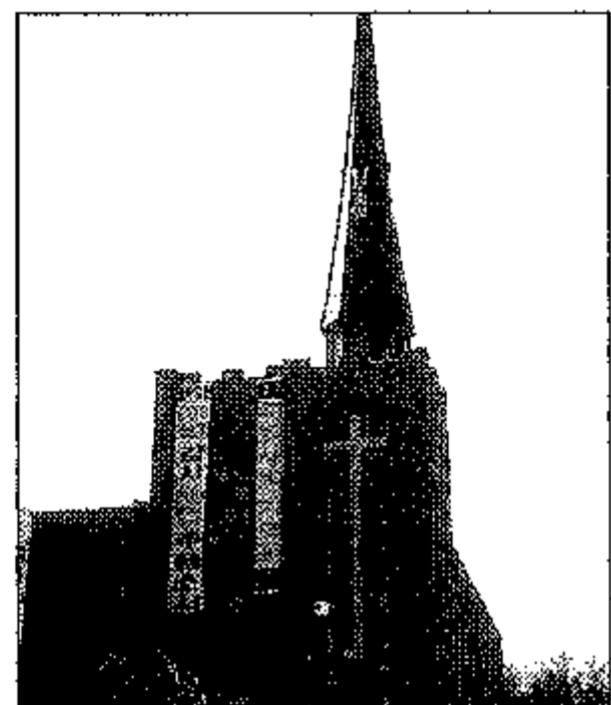
금곡교회는 풍덕천리 722-7번지에 위치하는데, 2001년 4월에 현재 담임목사인 박신규(54세) 목사가 설립하였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활동을 자제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모색하고 있으며 신도수도 많지 않다.

○ 나눔의교회(예장)



죽전리 865-1번지에 위치하는 이 교회는 2000년 1월에 박정웅목사가 설립하였다. 박목사 외에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 1명과 강도사 1명이 신도 40명과 목회를 하고 있다. 2층에 교육관, 목양관, 기도실, 사무실이 있고 3층을 본당으로 사용하며 본당 안에는 120석이 있다. 교회의 명칭처럼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 교회 수입 전체의 반을 사용하여 재정이 투명한 ‘나누는 교회’라는 점이 특징이다. ‘나눔과 섬김, 베품’을 교회 목표로 하고 ‘사랑, 풍성, 생명’을 생활표어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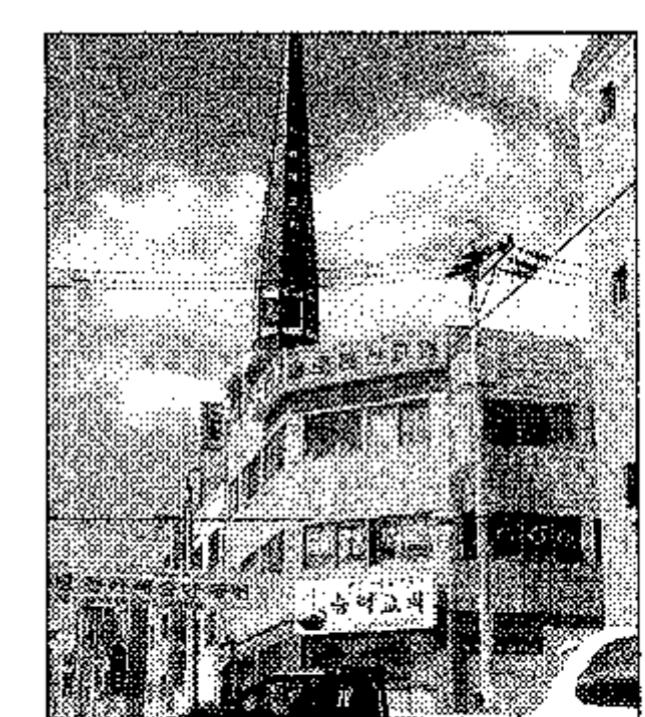
○ 남부중앙교회



김찬섭(50세) 목사가 16년 전 서울에서 설립했던 교회를 1993년에 풍덕천리 399-26번지 현재 위치로 옮겨와 설립했다. 이 교회의 위치는 “자동차가 없던 시절 말죽거리에서 말을 타고 수지쯤에 도착 할 때면 정오가 되는 당시의 교통요지였다”고 김목사는 말한다. 그는 애초에 인심과 자연경관이 좋아 용인을 성시로 만들 계획을 가졌다고 한다. 교회규모는 420평 대지에 연건평 250평인데, 1층 예배실과 2층 예배실, 지하교육관 등이 있다. 장학사업을 중시하여 특별장학선교예배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초등학교의 결식아동을 돋는다. 앞으로 장학관을 지어 지방의 어려운 목회자의 자손을 돋고 농어촌교회를 지원하고 노인복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 능력교회

1997년 풍덕천리 682-13번지에 이준희(50세) 목사가 설립한 교회이다. 대지 60평에 건평 40평 건물에서 담임목사 외에 장로 1명이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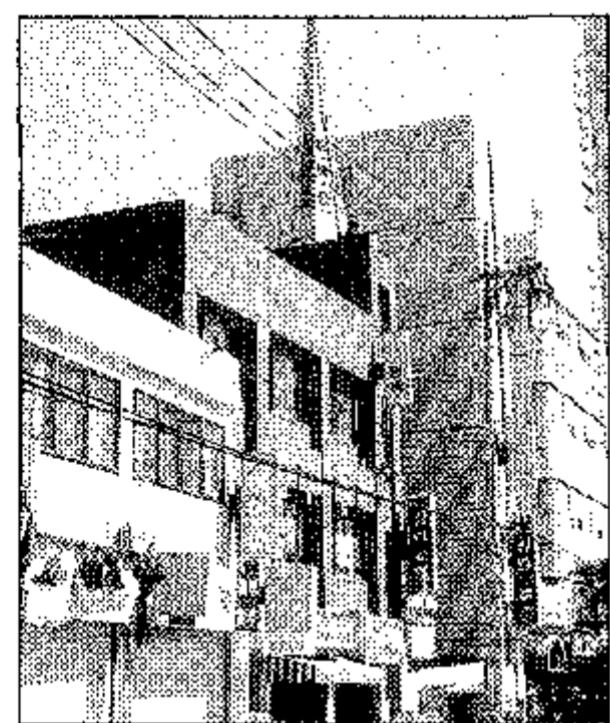
도 35명과 유초등부 15명과 목회를 한다. ‘불가능이 없는 교회’와 온 세계를 교구로 삼아 국내외선교를 목표로 하며 불우이웃, 어려운 재소자나 노인정을 돋고 있다.

○ 대광교회(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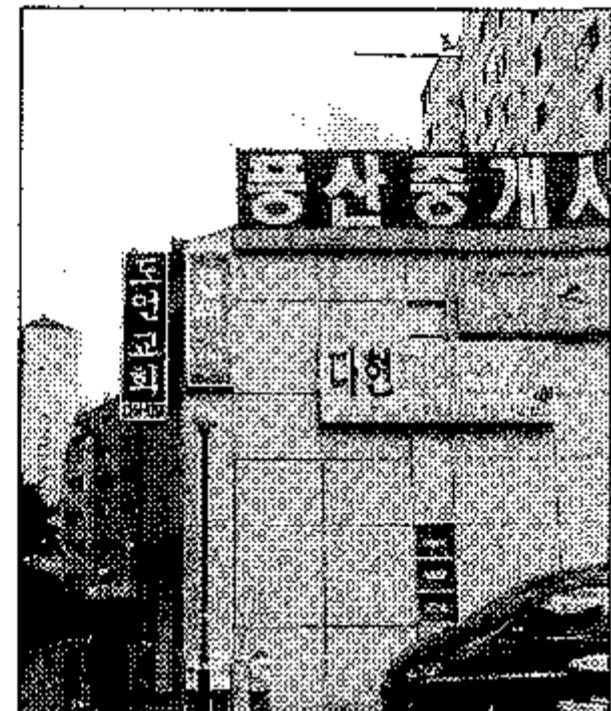
풍덕천리 482-1번지에 위치한다. 유강신(52세) 담임목사가 ‘큰 꿈을 이루어 큰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전도사 16명, 소속선교사 6명이 담임목사와 목회활동를 한다. 신도수는 600명이고, ‘민족복음화, 세계선교화, 사회봉사, 교육사업’을 목표로 하고 ‘예수생명, 예수능력, 예수마음, 예수증인’을 신앙지표로 삼는다. 성경공부를 위해 새신자반, 기초반, 영성훈련반, 사역자반, 지도자반 등이 있고 부설 대광선교원이 있다. 대광교회는 유목사가 1980년에 서울 금천구에 설립한 교회를 1998년에 현재 위치로 옮겨왔다. 대지 1000평에 연건평 500평규모의 교회에는 1,000석이 갖춰져 있다. 정기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위한 바자회를 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돕기 노인정이나 장애인을 돋고 있다.

○ 대림교회(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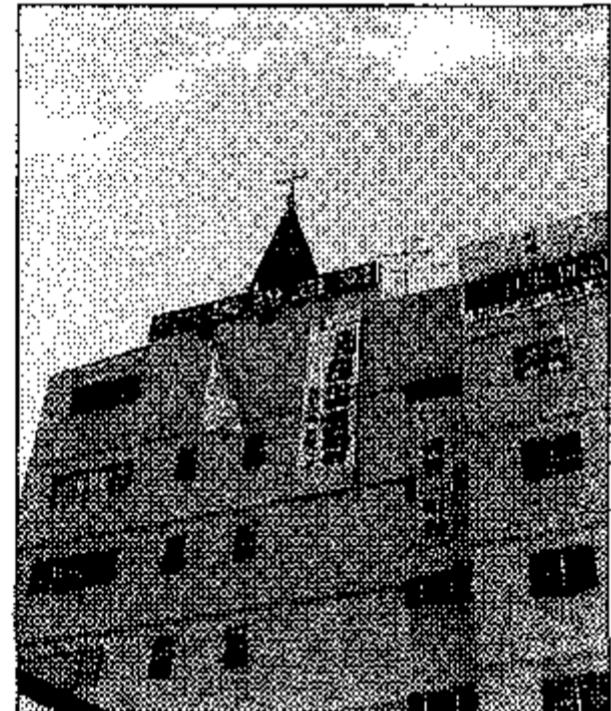
풍덕천리 82-14번지에 1995년 초대 박천범목사가 설립한 교회다. 1999년부터 장시관(35세) 목사가 담임목사이며 상가 3층에 50여평을 교회로 사용한다. ‘영원을 구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을 지향하며 신도수는 20여명인 개척교회다. 천사원을 방문하여 장애인들을 돋는다.

○ 도언교회



상현리 96-1번지 상가건물 약40평에 2000년 김민철(38세) 목사가 설립한 교회다. 30~40명의 성인신도와 청년부 15명, 유아부 20명 규모 교회로서 지역문화를 이루어나갈 것을 지향한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다운 교회, 삶이 간증되는 교회’를 위한다고 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기독교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방학 중에 공부도 하고 악기를 가르친다. 광주 예광원에 봉사활동을 나간다.

○ 동광교회



풍덕천리 668-2번지에 위치하는 이 교회는 현재 수지지역기독교 연합회장인 안광목(46세) 담임목사가 1995년 1월에 설립하였다. 복합건물 5층에 105평을 교회로 사용한다. 목사 외에 전도사 2명과 장로 1명이 신도 60명, 유치부선교회 80명, 중고생부 80명과 함께 목회를 한다. ‘지역복음화를 통한 하나님나라 확장’을 목표로 사회봉사에 중점을 둔다. 소년소녀가장과 노인복지为了 위한 복합복지관 ‘사랑의 집’을 준비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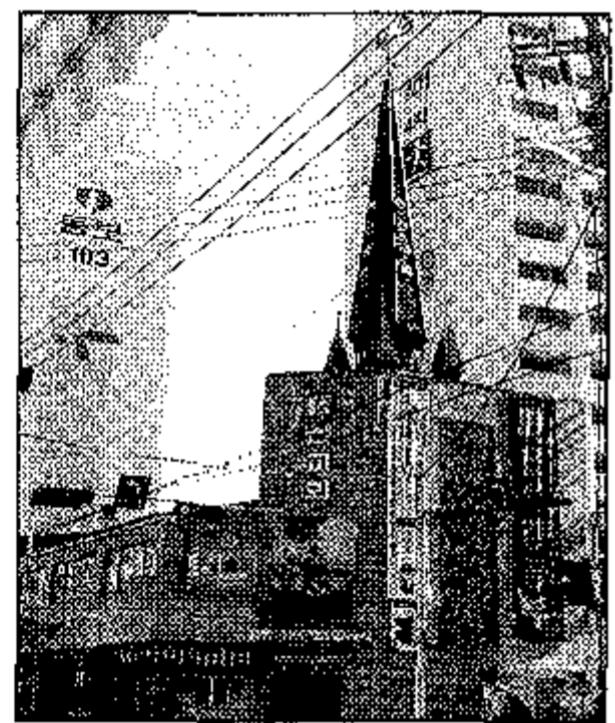
○ 동부중앙교회(예장)



죽전리 현대아파트 단지 상가 2층에 위치한다. 1999년 12월에 박재용목사가 설립한 교회로서 현재는 2대 김동일(52세) 목사가 2명의 전도사, 1명 장로와 함께 목회를 담당하고 있다. 교회 안에는 약 50~60석이 있고 신도수 10여명의 작은 규모의 교회다. ‘하나님사랑과 이웃님사랑’ 그리고 ‘신령한 예배와 거룩한 생활, 성전

건축'을 교회목표로 한다.

○ 동산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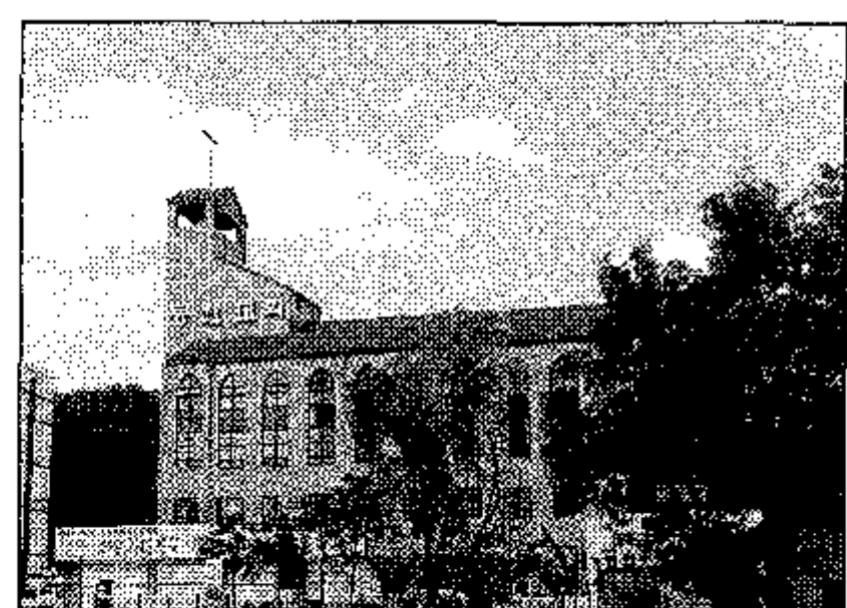


김재남(49세) 목사가 풍덕천리 240-3번지에 2000년 2월에 설립한 교회로서 120평의 2층 건물이다. 담임목사 외에 원로목사와 지도목사가 있으며 전도사와 장로가 3명, 성인신도 150명, 청소년부 50명 규모의 교회이다. 십자상이 있는 환한 본당 안에는 150여석의 예배 의자가 비치돼있고 외부에는 '내실 있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종탑이 있다.

○ 동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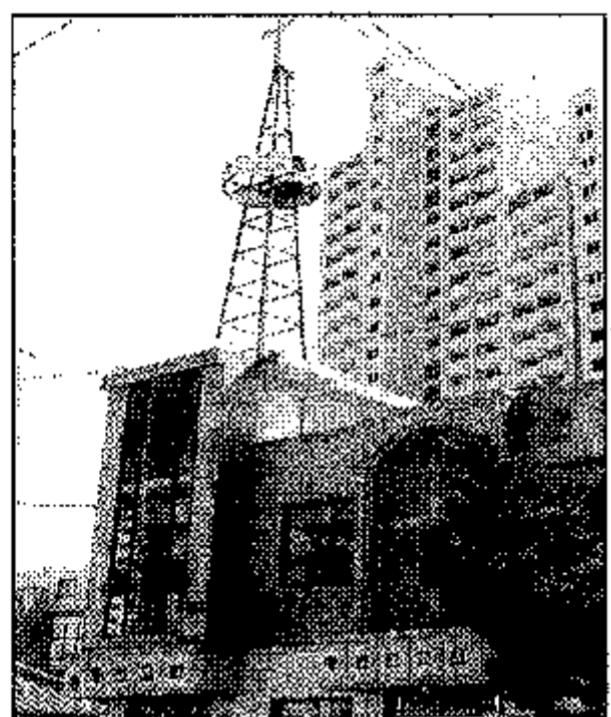
이종석(46세) 목사가 수원 우만동에서 10년동안 목회하다가 1999년에 수지로 와서 상현리 544번지에 설립한 교회이다. 대지 180평에 교육관과 본당을 갖춘 교회이다. 본당 안에는 300명을 위한 의자가 비치되어있다. 목사 외에 전도사 1명, 장로 2명이 신도 80여명과 목회하고 있다. 그리스도정신을 전파하고 수요 봉사활동으로 장애인 단체를 방문, 자원봉사를 해왔다.

○ 동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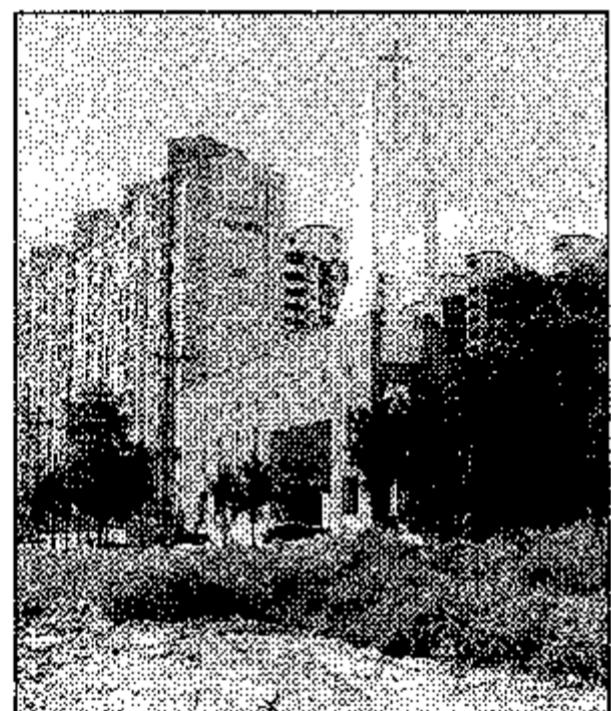
동천리 366-3번지에 위치한다. 이 교회는 1961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의 김창기(45세) 목사는 1982년에 부임하여 장로 3명, 전도사 3명과 신도 500명과 목회를 한다. 대지 600평에 연건평 600평 규모의 동원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란 표어를 지향한다.

○ 동천교회(예장)



동천리 371-11번지에 위치한다. 이영근(49세) 담임목사가 신도수 80명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을 깊없이 드리는 교회’라는 표어를 지향한다. 교회 부설 동천선교원을 운영한다.

○ 로뎀교회



이용길(55세) 목사가 1974년 서울에서 교회를 하다가 1977년 죽전리 497-5번지로 옮긴 대지 500평 규모의 교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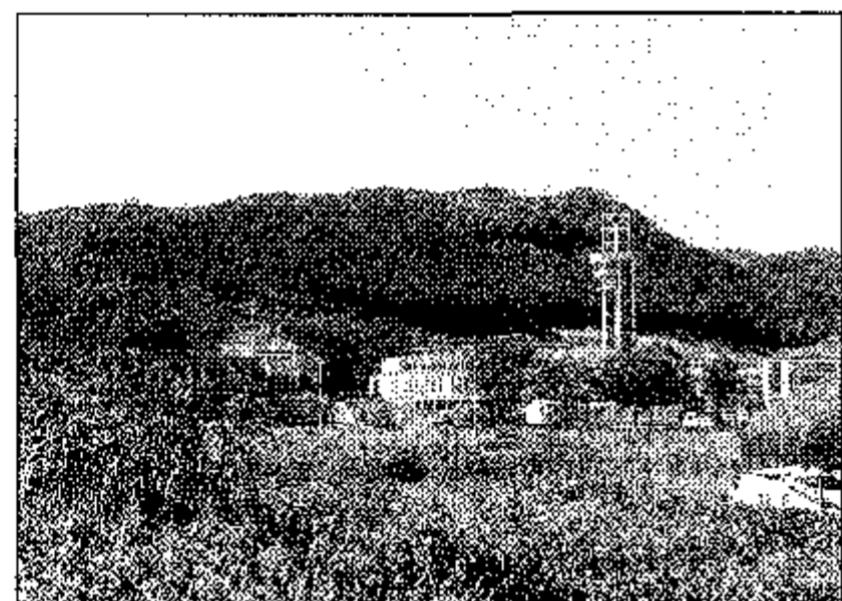
○ 만남의 교회

동천리 산 152-18에 위치하는데, 1980년 6월에 초대 정평수(58세) 목사가 설립하여 현재까지 담임하고 있다.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 1명, 전도사 3명, 장로 5명이 신도 500여명과 청소년부 120-130명과 함께 목회를 한다. 본당 안에는 1000석이 비치돼있다. ‘바른 교육, 바른 정치, 분명한 신앙관’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소금과 빛이 되고, 지역 가구공장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도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려고 한다”. 우간다에 300명규모의 신학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통일을 대비하여 장차 이북지역에서 무너진 교회재단을 재건할 계획이나 영어 성경공부 계획 등을 갖고 있다.

○ 목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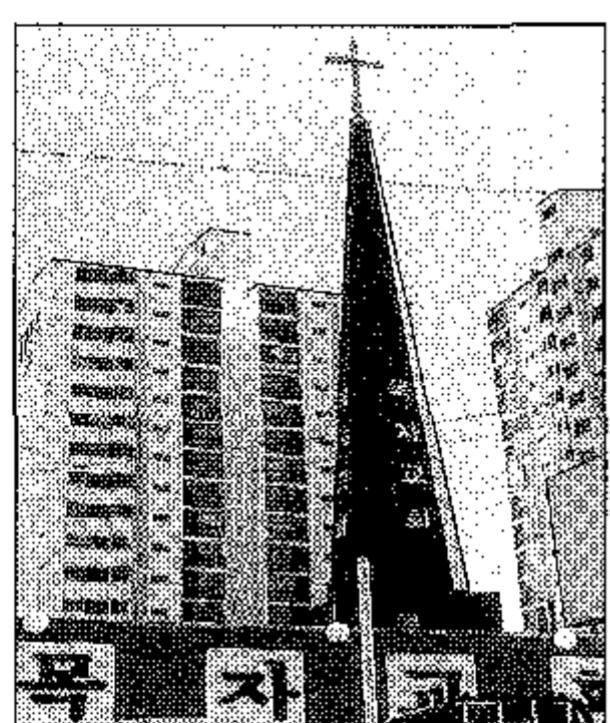
1998년 1월에 문기식(43세)목사가 죽전리 453-1번지 한신상가에 설립한 교회다. ‘오늘에 수지복음화, 내일은 세계복음화’를 교회표어로 한다. 담임목사 외에 전도사 2명이 60평의 교회에서 신도 100여명과 목회를 한다. 전도를 위주로 하면서 바자회와 불우이웃돕기도 한다.

○ 목양교회(감리)



1961년에 서울 노량진에서 설립한 교회를 1980년 서울 대치동으로 이전하였다가 1997년 다시 현재의 동천리 산 10-3 번지에로 이전한 큰 규모의 교회다. 교회는 ‘선교적, 성서적, 전원적, 낮은 것’을 지향하며 2000년에 완공된 한국적 곡선미를 강조한 교회건물에는 교육관 1600평, 본당 신관5800평 등이 있으며 미완성된 부분은 2005년 완공될 계획이다. 현재는 8대 담임 유관지목사와 원로목사 2명, 선교, 교육, 문화담당 부목사 3명, 장로19명, 전도사 5명 등이 ‘통일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목양사이버처치(컴퓨터선교)’와 타문화권선교, 농아 등을 위한 특수선교를 하고 있다.

○ 목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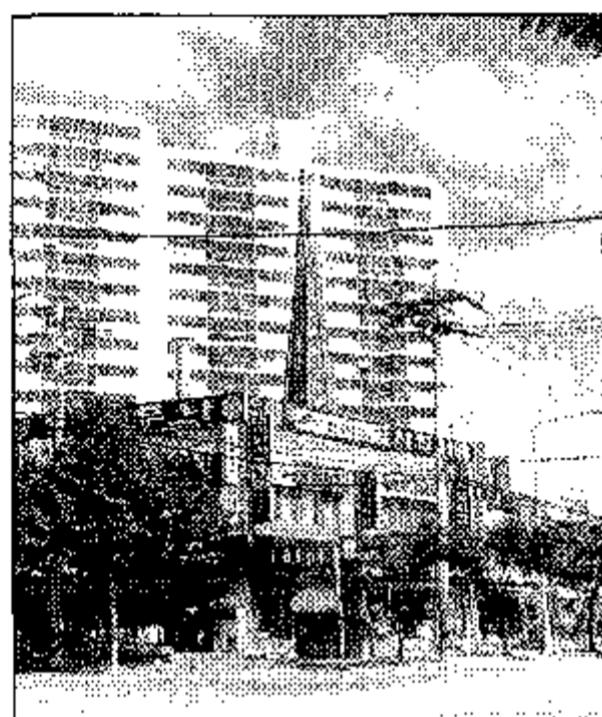


1995년 김동환목사가 죽전리 1003-68번지에 설립한 교회다.

○ 무지개선교원

설립자 정회길(55세) 목사가 선교원은 그만두고 현재는 같은 위치에 수지로교회를 설립하였다.

○ 사랑하는 교회



풍덕천리 1동 703번지에 위치한다. 1996년 고성원(45세) 목사가 상가 2층 44평에 설립하였다. 약 40여석의 예배의자가 있고 현재 고 목사 외에 전도사 1명이 신도 40여명과 목회를 한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교회’를 지향하며, ‘제가훈련, 청소년 사업,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비전으로 한다. 특히 젊은이들 모임을 자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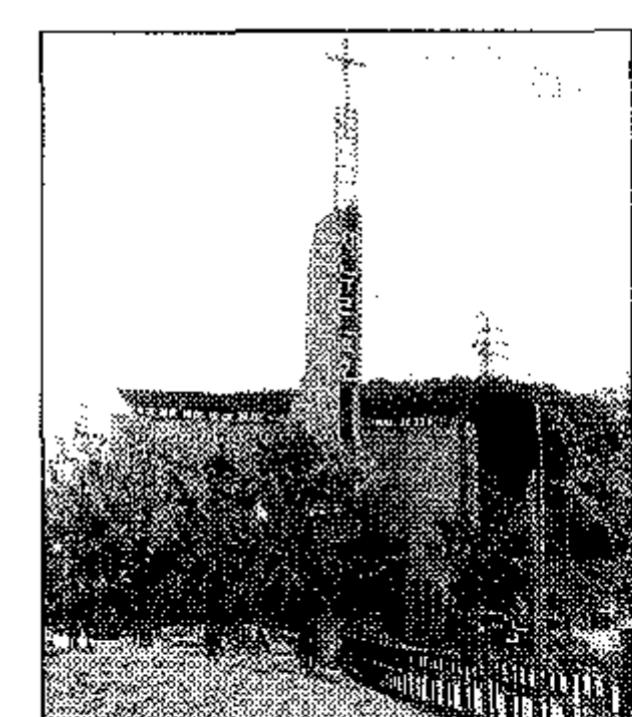
○ 산성교회



죽전리 72-1번지에 위치하며 1990년에 설립된 교회로서 황규식(49세) 목사가 담임목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증언된 교회, 성령께서 일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지향한다. 대지 230평에 연건평 85평 규모로 신도 500명 규모의 교회다. 강원도 평창에 노인복지를 위하는 산성수양관을 1500평 땅에 160평 규모로 갖고 있는데, 지역사회교육사업, 특히 유아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새누리교회

죽전에서 1999년 1월에 문을 열었다가 풍덕천 1043번지에 2001년 8월에 새누리교회로 개명하여 설립한 교회다. 김영규(42세) 담임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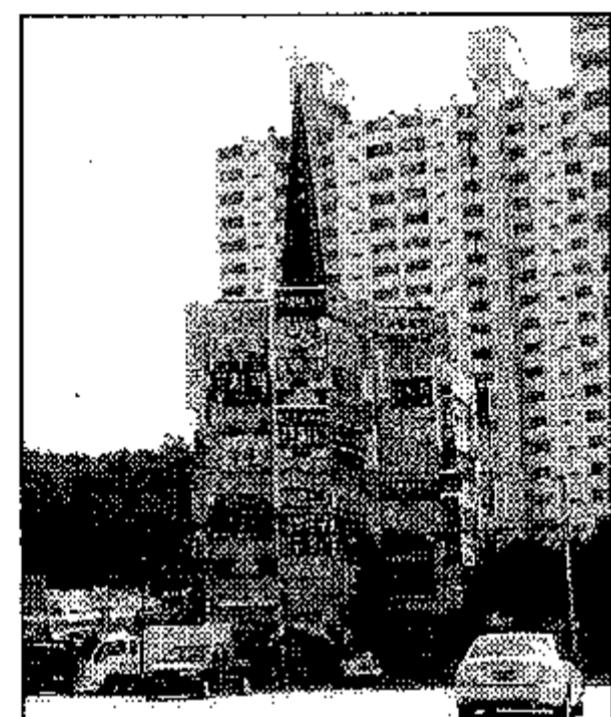
사가 장로 1명, 전도사 3명과 신도 130명, 청년부 20명, 유초등부 50명과 함께 목회한다. 대지 200평, 연건평 200평에서 예배와 문화사역을 주로하는데, 컴퓨터, 종이접기, 글짓기, 미술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봉사활동을 함께 한다.

○ 새사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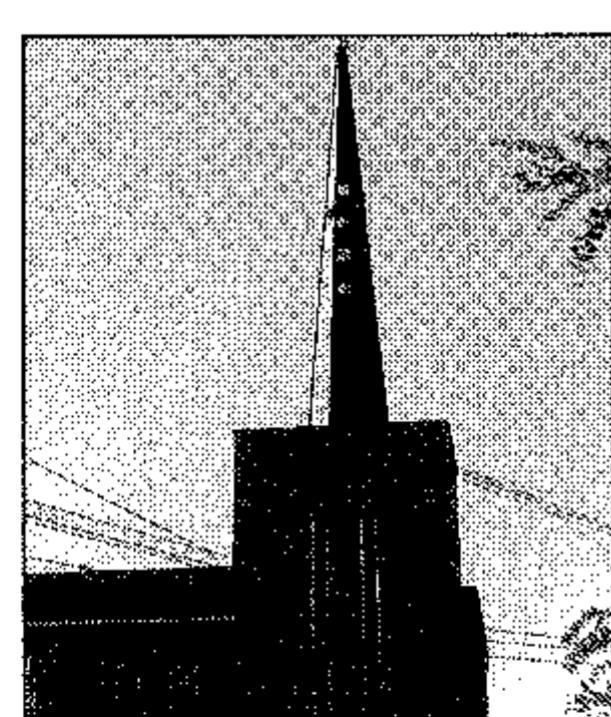
‘늘푸른교회’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죽전리 190-2번지 상가 지하에 위치하는 교회로서 김상오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담임목사는 새사랑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 새생명교회



옥탑만 남아있고 그동안 영문교회로 바뀌었는데 실제로 영문교회도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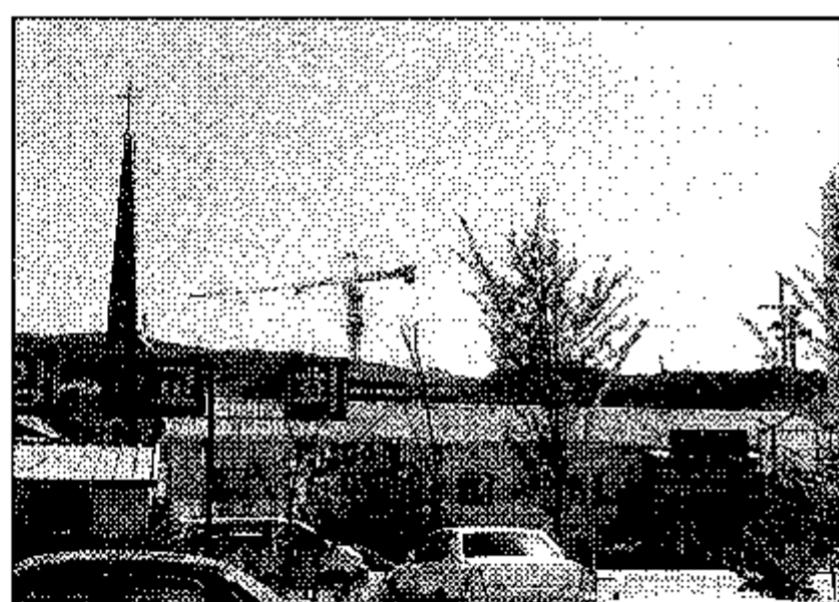
○ 새순교회(침례)



죽전리 367-1번지에 위치한다 새순교회는 수지면의 많은 개척교회와는 다르게 이미 35년전 1965년에 정선완목사가 설립한 교회다. 200평대지에 지하1층과 지상2층을 포함해서 150평의 건물이다. 담임목사 외에 전도사 2명이 신도 50여명, 청소년부 30명(성가대 15명)과 목회활동을 한다. 부대활동으로는 지역사회주민과 학생을 위

한 신앙생활과 교육을 주로 한다.

○ 새중앙교회



죽전리 472-6번지에 민화규(39세) 목사가 1997년에 설립한 교회이다.

○ 새창교회

이재선(42세) 목사가 1997년 12월에 설립하였다. 풍덕천리 705-3번지 상가건물에 위치한 94평 규모의 교회로서 신도 60명과(성가대 15명) 학생부 10명, 유초등부 30여명의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다. 주로 문화행사를 중심활동으로 하는데, 길거리농구대회와 바자회, 경노잔치, 공원선금을 모금하고 야학, 문화센타를 운영한다.

○ 샘솟는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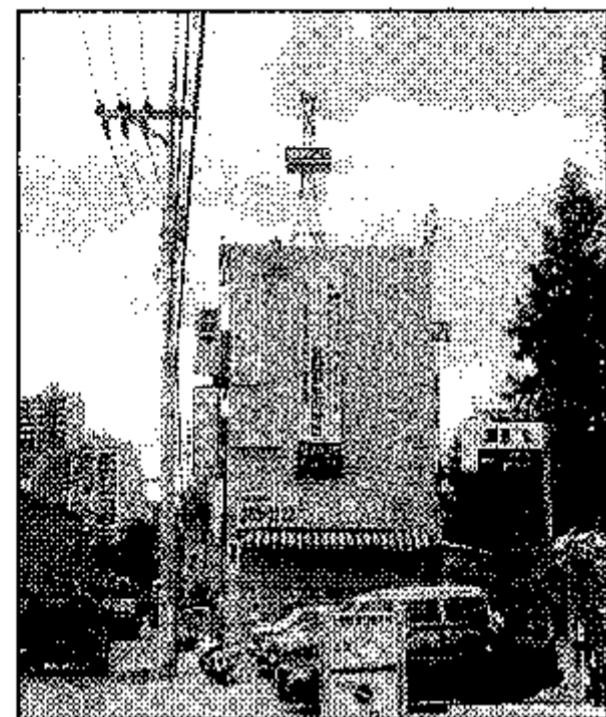
죽전리 500번지에 위치하는 이 교회는 1995년에 윤준표(49세) 목사가 설립하였는데 상가건물3층에 23평 규모의 교회다. 신도수는 30명에 이르고, 북한선교와 대학생선교를 집중적으로 생각한다.

○ 생명샘교회

풍덕천리 703-4번지에 위치하며 손재락(43세) 목사가 1997년에 설립한 교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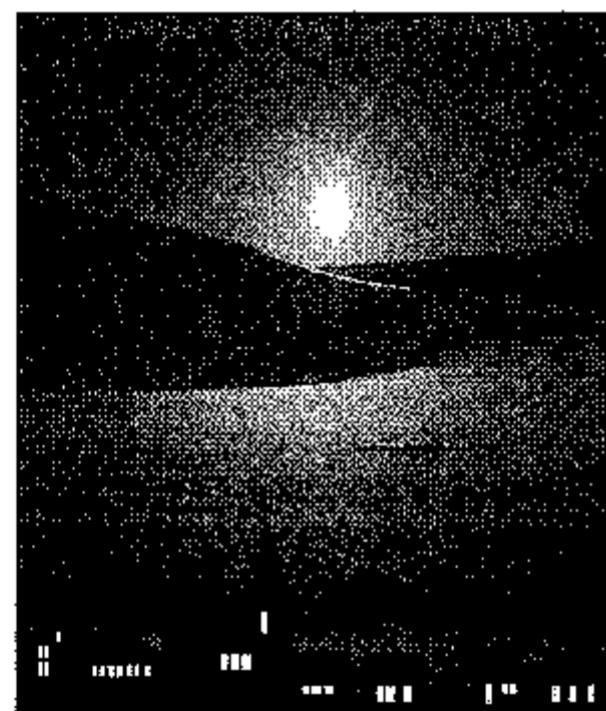


○ 생명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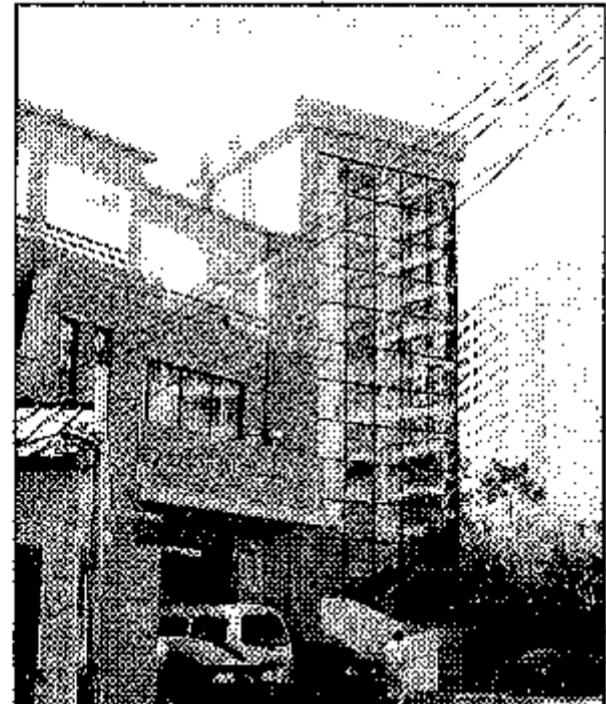
1998년 11월 이상현(50세) 목사가 동천리 180-12번지 설립한 교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웃과 같이 나누고자” 교회를 설립하여 복음전파를 애쓴다. 상가 2층 35평 규모에 아직은 신도수가 15명 정도의 개척교회이다.

○ 서원교회(예장)



1996년에 설립된 교회로 상현리 64-2번지에 소재한다. 대지 748 평에 40여평 규모의 교회건물이 있다. 김창섭목사가 50여명의 신도와 함께 ‘심고 자라고 열매맺자’는 표어를 갖고 지역복음화를 위해 목회활동하고 있다.

○ 선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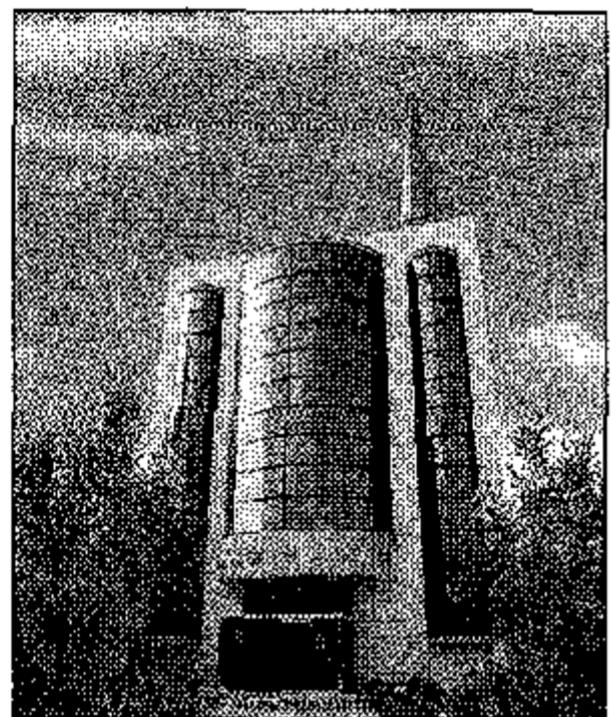


1995년에 유영식(53세) 목사가 ‘오직예수,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라는 취지로 성복리 159번지에 설립한 교회다. 대지 400평에 건평300평의 현대식교회에는 예배당 외에 학생주일학교와 소그룹 성경공부를 위한 방과 기도실들이 있다.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 1명, 전도사 1명이 신도 70여명과 성가대 25명, 청소년 60명과 목회를 한다.

○ 섬김의교회

풍덕천리 한국아파트상가에 윤명수(44세) 목사가 1995년에 설립하였다. 상가건물 2층에 100평규모로 신도는 100명 정도다.

○ 섬김의교회(감리)



죽전리 484-13번지에 위치한다. 조병돈담임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되자’라는 표어와 함께 1984년 11월에 설립하였다. 담임목사 외에 김지석교육목사가 함께 목회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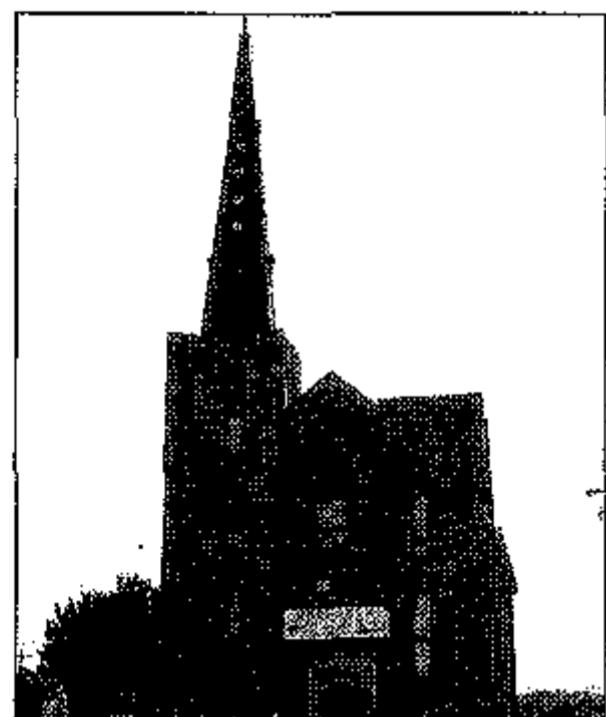
○ 성광기도원

신봉리 750-1번지에 위치한다. 배형국(63세) 목사가 1981년에 설립하였으며 대지 3000평에 연건평 1500평 규모의 기도원을 현재 신축하고 있다. 현재는 120평을 예배당과 숙소로 사용하는데, 연 이용자는 1500명~2000명에 이르고, 교파를 초월하여 목회자나 신도들이 주 이용자다.

○ 성복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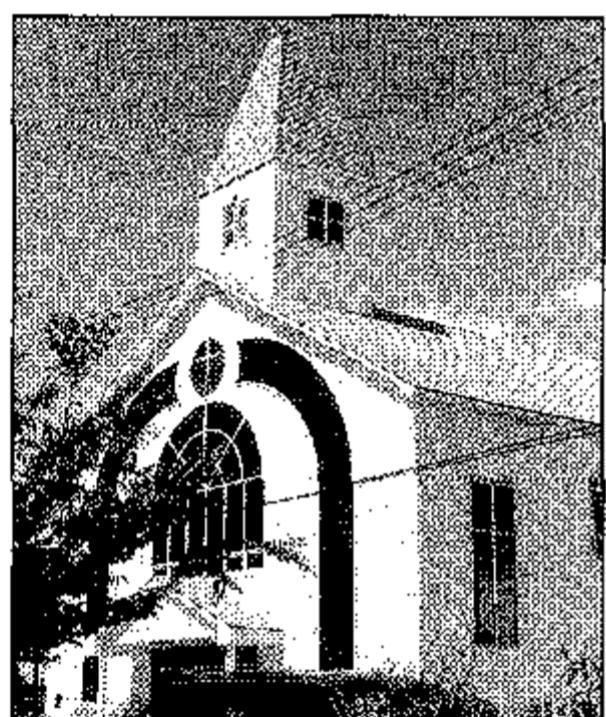
성복리 289-5번지에 위치하는데, 1995년 송기성목사가 설립하였다. 원어로 연구된 성경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며 신도수는 15명 정도로 성복리개발지역에서 개척을 하는 교회다. 예배를 중히 여기며, 어린이주일학교를 하고 있다.

○ 성산교회(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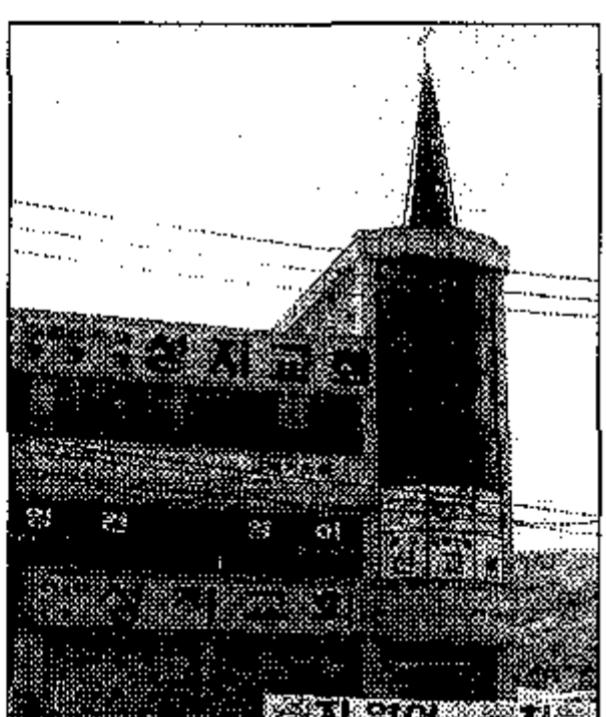
동천리 325-13번지에 위치하며 1986년에 교회를 설립한 한상필(54세) 목사가 15년 동안 담임하고 있다. 신도수는 50~60명과 청소년부 10명 정도다. 교회 안에는 70명을 위한 예배의자가 있고 주변 아파트의 노인정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왔다.

○ 성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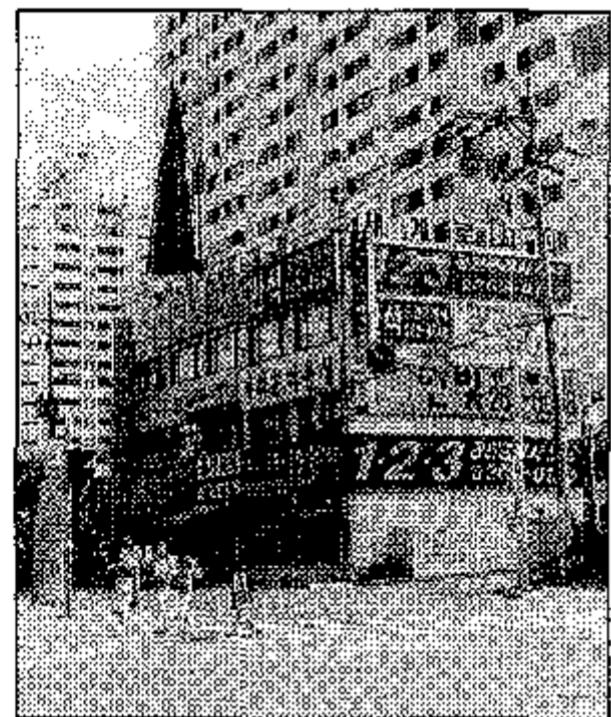
1999년 강로학(50세) 목사가 죽전리 153-6번지에 설립한 교회다. 대지 260평에 3층 460평규모의 교회에서 담임목사 외에 장로 7명, 전도사 8명, 신도 500여명이 목회를 한다. ‘이웃과 호흡하는 교회가 되자’는 표어를 지향하며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에 따른다”고 한다.

○ 성지교회(예장)



죽전리 184-7번지에 위치한다. 이용일담임목사와 협동목사 1명, 전도사 2명이 목회를 한다. ‘모든 신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평신도지도자가 되어 한국을 변화시키자’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용일목사는 원래 공학을 전공한 후 신학의 길로 들어서 1978년이래 가정교회로 목회를 하다가 1998년 11월에 상가건물에 이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는 “전도를 가장 중요한 교회일로 생각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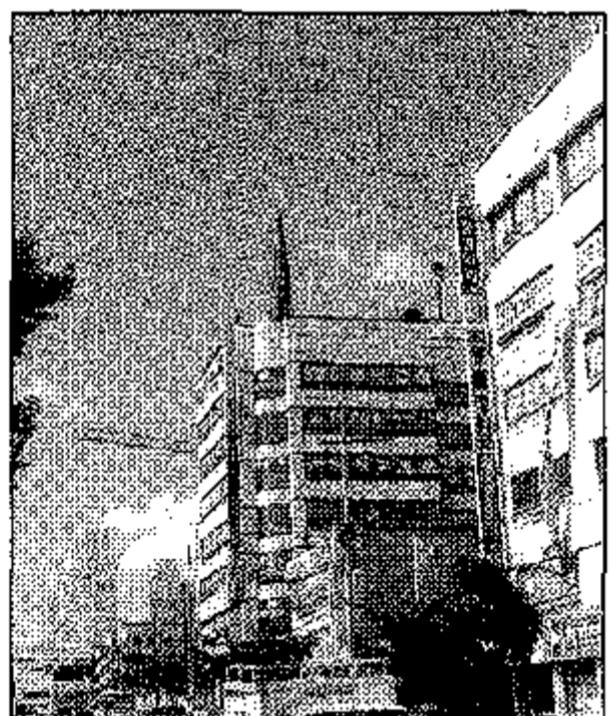
○ 세계로교회



하게 생각한다.

풍덕천리 504-10번지에 위치한다. 김기일(59세) 목사가 1986년 3월에 ‘밝은교회’로 시작했다가 1999년 ‘세계로교회’로 개명하였다. 상가건물에 60여 평 규모로 담임목사 외에 장로 1명이 신도 80명과 목회한다. ‘오직 예수, 세계화복음을 목표’로 하며, 세계선교를 지향하여 선교사지원을 한다. 신앙훈련을 통한 정신과 삶의 치유를 중요

○ 세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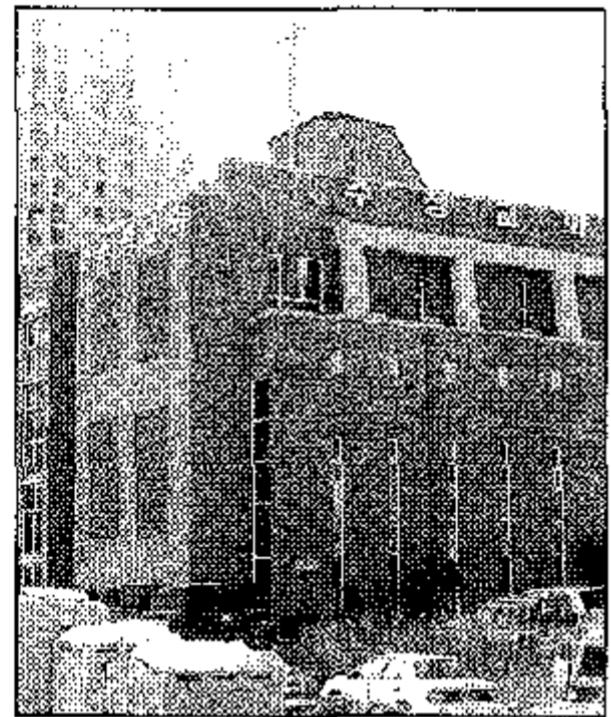


풍덕천리 712-3번지에 본래 정사무엘목사가 ‘성장하는 교회’를 설립하였다가 정목사가 미국에 가고 현재는 세은교회로 개명하여 현재는 정봉기(52세) 목사가 담임을 하고 있는데, 곧 이전할 계획이다.

○ 소명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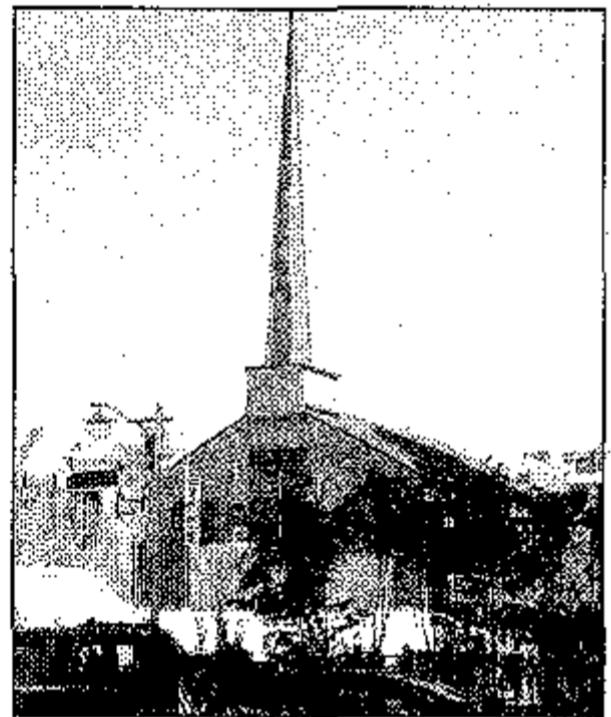
안기준(56세) 목사가 1986년 6월부터 서울에 설립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1999년 12월 죽전리 306번지에 다시 설립한 교회다. ‘섬기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지역봉사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며 신도수는 50여명이다. 현재 대지 70평에 연건평 200평으로 교회를 신축설계 중이다.

○ 수정교회



1975년 1월에 이종식(56세) 목사가 설립했고 2000년 6월에 현재의 풍덕천리 699번지 교회로 입당하였다. 대지 24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500여평의 교회에서 이목사는 전도사 3명과 신도 350명과 목회한다. 어린이 영어학교, 독서논술공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머니 학교도 하고 있다. 선교와 이웃사랑을 제일로 삼아 어려운 교회나 가정이 어려운 대학생을 지원하고, 급식비도 지원한다.

○ 수지광성교회



풍덕천리 101번지, 수지2지구에 위치한 교회다. 1990년 4월 안현수목사가 설립한 교회로서 전도사 3명, 장로 4명과 목회하고 있다. 신도는 장년 250명, 학생부 150여명이 ‘하나님 중심, 복음중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무료법률상담이나 공원쉼터, 경로대학, 주부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수지교회(예장)



1999년 1월에 이태종(43) 목사가 상현리 107번지 삼성프라자 상가 2층에 150평 규모로 설립한 교회다. 담임목사 외에 전도사 5명이 신도 80명, 학생부 6명, 아동부 30명, 유치부 25명과 목회하고 있다.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되는 교회’를 지향한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이목사는 용인경찰서 경목실을 지원하고, 동북아시아 선교사를 지원하며,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다.

○ 수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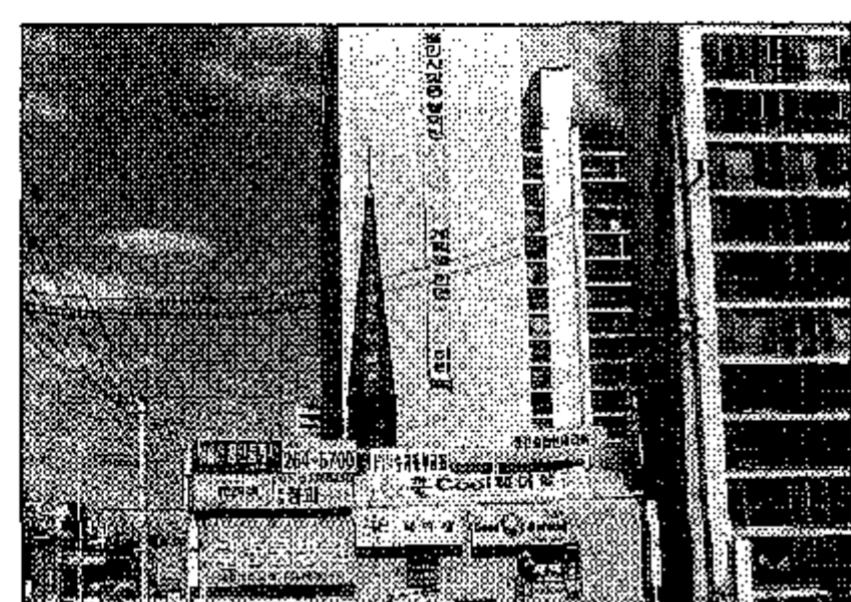
1999년 동천리 196번지에 유정열(45세) 목사가 설립한 개척교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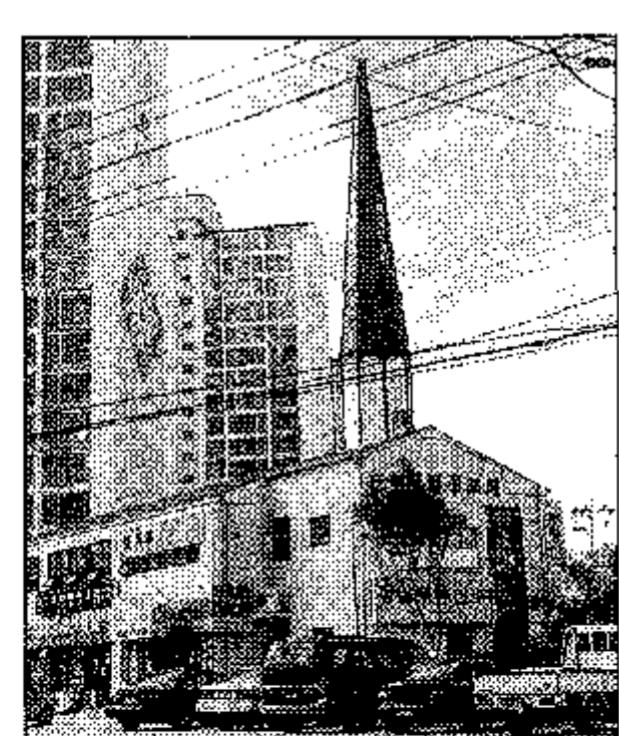
○ 수지남서울교회

서울 1995년부터 양재동에서 교회를 하던 주금용(42세) 목사가 2000년 풍덕천리 수지2지구 1001-3번지에 설립한 교회다. 대지 260평에 연건평 543평의 4층 건물의 교회이다. 교회 안에는 예배당과 교육관, 도서실, 선교원이 있다. 담임목사 외에 장로 3명, 전도사 5명이 신도 400명, 청년부 90명, 중고등부 80명, 유초등부 100명과 목회를 한다. 교회활동으로 장학사업을 하며 청소년목회와 교사사역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불우이웃돕기도 한다. 앞으로 해외선교와 미션고등학교를 세우고 싶은 뜻이 있다.

○ 수지동부교회(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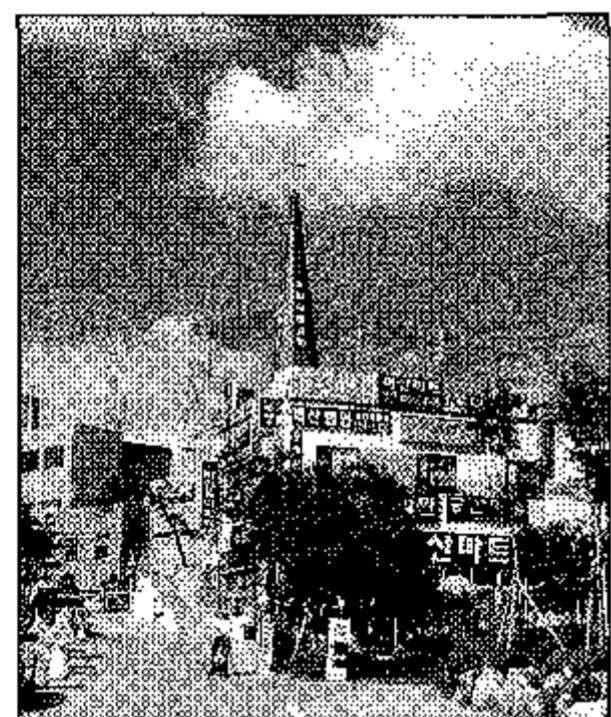
1994년 11월 죽전리 475 번지 효성빌딩 지하 42평에 설립된 교회다. 현재 담임목사는 김한복목사이다.



○ 수지명성교회(예장)

2001년 6월에 김범식 담임목사가 창립한 교회다. 성복리 90번지에 위치한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삶’을 표어로 한다. 담임목사 외에 전도사 1명, 장로 1명이 있다.

○ 수지사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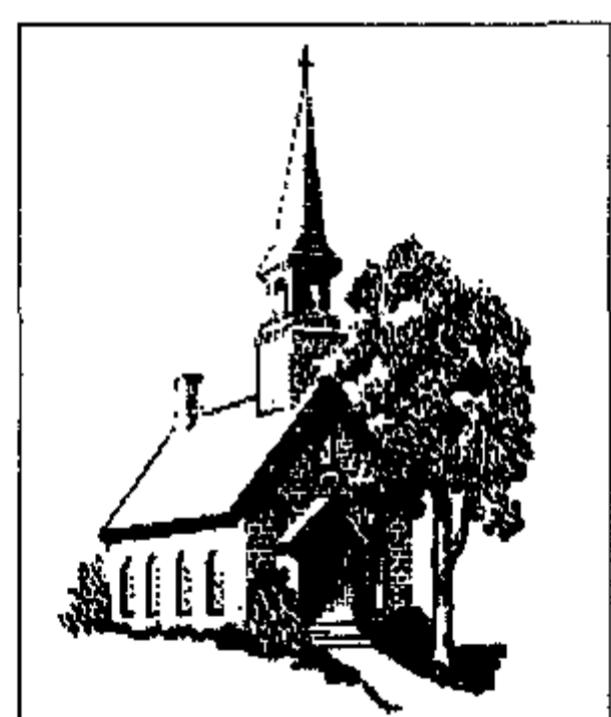


상현리 벽산상가에 위치한다. 안기환(55세) 목사가 1999년에 설립 하였는데 22평규모의 개척교회로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신도 20여명이 목회를 하며, 전도를 제 1 목표로 생각한다.

○ 수지사랑의교회

장현수목사가 설립했는데, 2001년 풍덕천리 740-3에서 신갈로 이사했다.

○ 수지새중앙교회(예장)



죽전동 472-6번지에 위치하는데 1997년에 설립되었다. 민화규(39세) 담당목사가 전도사 2명과 목회를 한다.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이란 표어를 지향한다.

○ 수지성결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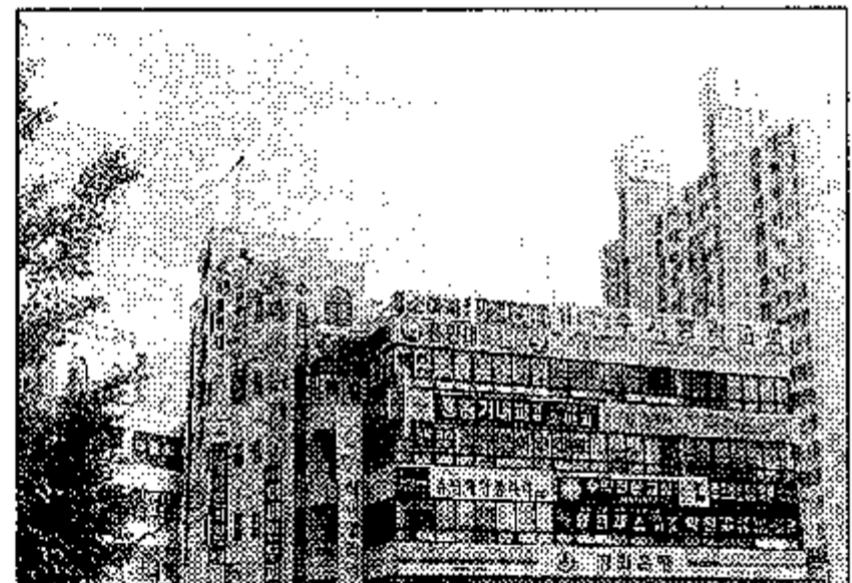
풍덕천리 716-11번지에 위치한다. 1대 박문규목사가 1996년에 설립하여, 2대 김순애목사가 98년부터 재임하다가 2001년 9월부터 현재의 정준택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상가지하 36평 규모에 신도 10명의 교회다.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고 싶으며, 현재로서는 교회를 신규아파트단지로 이동하기를 바란다. ‘수지전역을 교구화 하여, 제자훈련과 예배의 역동성을 살리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을 준비한다.

○ 수지아름다운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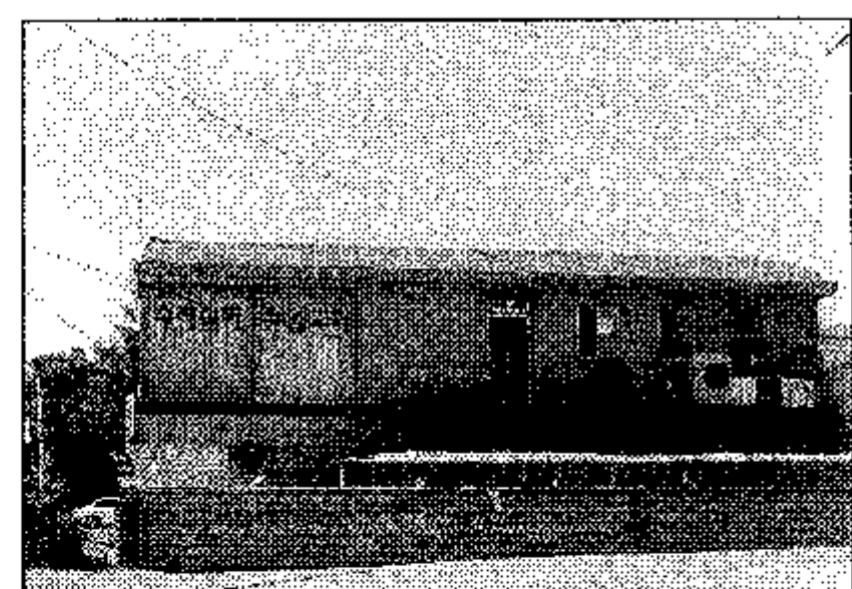
풍덕천리 수지2지구 6단지 진흥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한다. 2000년 1월에 송원근(41세) 목사가 상가건물 35평에 설립하였다. 신도수는 성인부 100여명과 유초등부가 20명에 이른다. ‘둥글둥글 모나지 않게 변화된 예배, 개혁된 목회’를 지향한다. ‘능력만큼 일하는 성도가 아니라 일만큼 능력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노인들을 위한 식사를 대접한다.

○ 수지영락교회(예장)



1996년에 설립된 교회로 수지읍 상현리 360-4번지에 위치한다. 대지 64여평에 연건평 130평, 전체 200평 규모 붉은 벽돌 건물의 교회로 신도수는 200여명이다.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실천목표로 하며 김홍구 목사를 중심으로, 협동목사 1명, 전도사 2명, 장로 1명 등이 목회활동을 한다.

○ 수지임마누엘교회



죽전리 1003-527번지에 위치한다. 2000년 12월에 김재호(49세) 목사가 설립하였다. 담임목사 외에 전도사가 2명 있다. ‘영혼구원과 복지를 위하여’ 복지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미혼모를 위한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 수지중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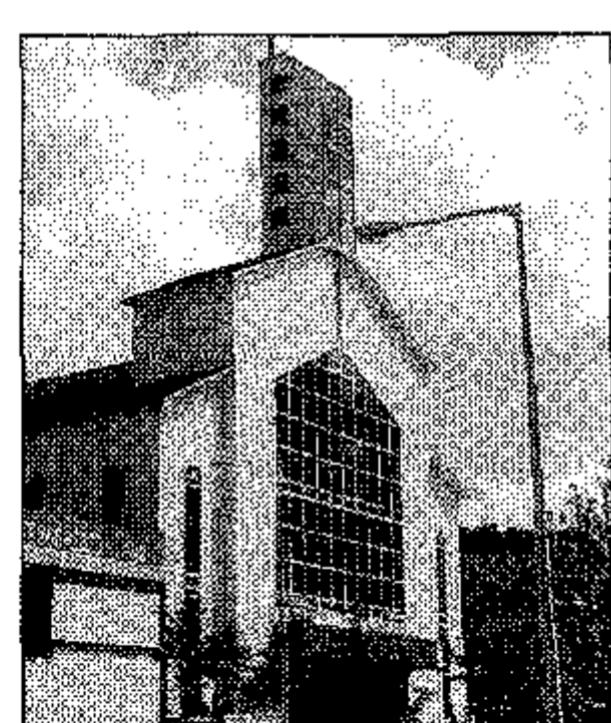
김영환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 수지충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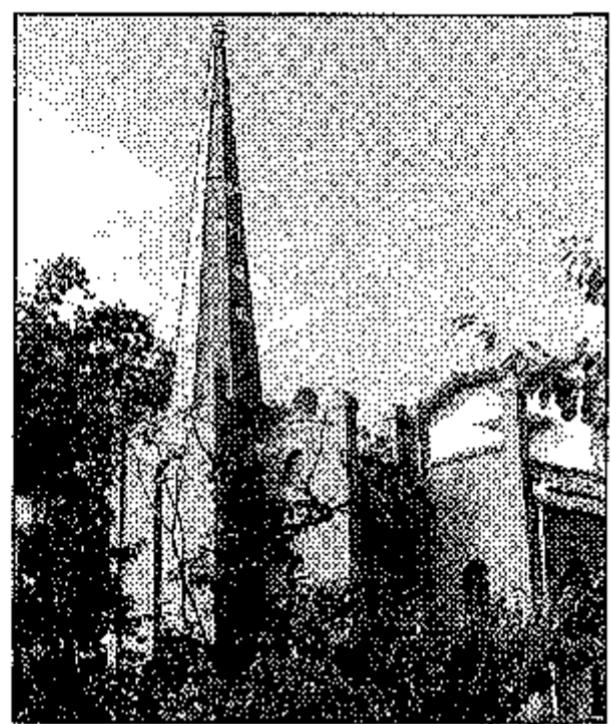
1997년 김성기목사가 상현1리 동보아파트 상가 3층에 설립하였다.

○ 순복음수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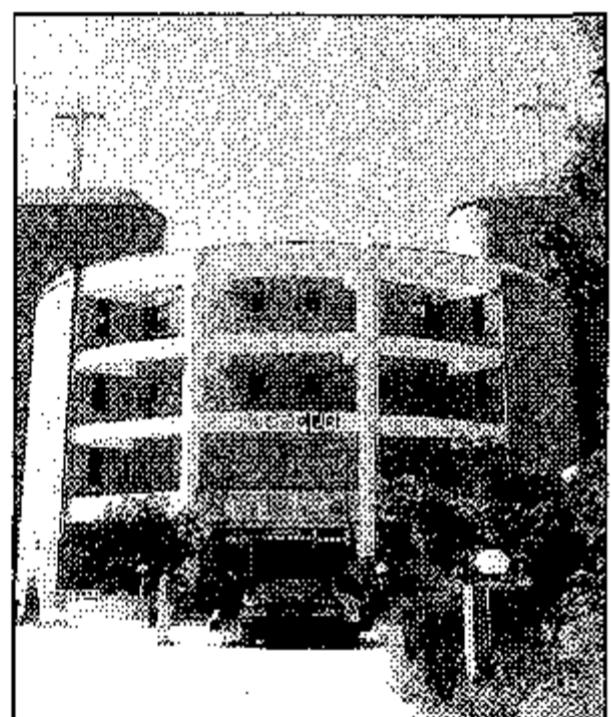
1996년 풍덕천리 1150-4번지(성원아파트 앞)에 연건평 600평 규모로 설립되었으며 박요한목사가 현재 담임목사이다. '500세대 1,000성도'와 '전도훈련의 강화', '구제사업의 강화'를 교회목표로 하며 1,000석규모의 예배당이 있다. 목사 외에 전도사 5명이 평신도 400명, 어린이부 80명, 중고등부 50명과 목회를 하며 성가대 60~70이 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성경말씀을 목표로 삼는다.

○ 신봉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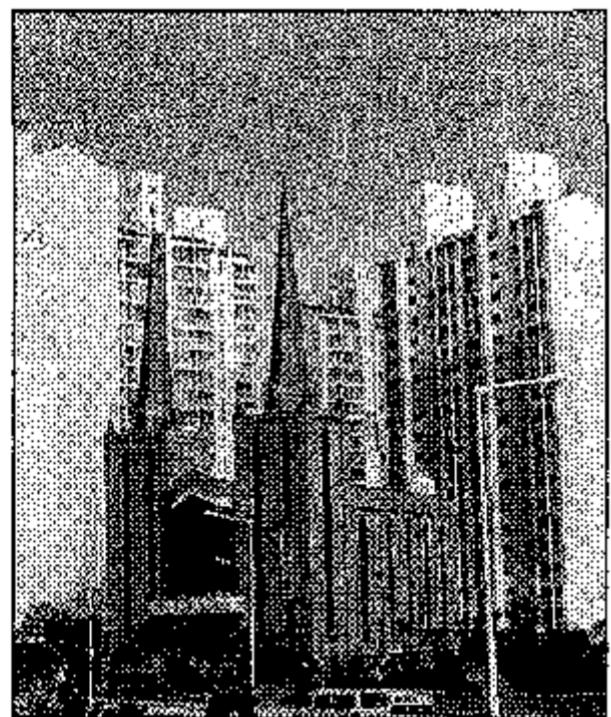
신봉리 54번지에 위치하는 이 교회는 1977년에 설립되었다. 250평대지에 연건평 100평의 이 교회는 ‘승리의 면류관을 설치하는 교회’를 지향하며 신도수는 80명 정도다. 주요활동으로 선교사를 많이 돋고 있다.

○ 신소망교회(순복음)



1994년 동천리 284-3번지에 1994년 문명석(56세) 목사가 450평대지에 400평규모로 설립한 교회이다. 교회 안에는 본당과 소예배실 2개, 식당 등이 있다.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 1명, 전도사 1명이 신도 200명, 어린이선교원 50명과 목회를 한다.

○ 신흥교회



1933년부터 용인에 있는데, 수지읍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서 풍덕천리 수지2지구 1106번지에 소재한다. 1933년 1월 교우 이가영씨와 이일순씨 등이 앞장서서 교인가정을 전전하며 예배를 드림이 동기가 되어 설립되었으며 3월에 수지면 풍덕천리 신촌마을내 초가 7칸을 매입, 개수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하였으며 4월에 초대 당회장으로 미국 선교사 노해리 목사가 추대되었다. 1961년 8월 26일 구 교회당(교육관) 22평을 신축하고 1962년 2월에 정성대 목사와 그해 2월에 임운택 전도사가 부임하였다. 1970년 5월에 기공한 구 교회당 건평 81평을 1972년 9월에 준공하고, 전도사로 있던

임운택목사가 1973년에 위임하고, 1975년 11월에 정봉윤 목사가 부임하였다. 1976년 7월 지역상 원거리 관계로 신봉리 교인을 독립시키기 위하여 신봉 교회당을 신축하였다. 1977년 천세철 목사가 부임하고 수원노회에 가입하였으며 1979년 천세철 목사가 사임하였고 김희봉 전도사가 부임, 1982년 김희봉 목사, 1985년 김영환 목사가 부임했다. 1992년 12월 22일에 윤갑율 목사가 부임하여 지금까지 담임목사로 있으며 그외 강도사로 시무하던 김명환부목사와 교육전도사 2명, 사무장로 4명 등이 목회하고 있다. 1996년 4월 25일 수지읍 죽전리 1003-436번지에 임시 예배 처소로 이전하였다가 1999년 6월 23일 수지읍 풍덕천리 수지2지구 4013-4번지에 새 교회당 기공 예배를 하였고 2000년 1월 2일에 새 교회당으로 입당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회차량을 2대 운행하여 새로 유입되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전도를 힘쓰고, 국내외에서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며 “성경을 기초로 하는 교회, 기도로 숨 쉬는 교회, 전도로 움직이는 교회, 성령으로 인도받는 교회”를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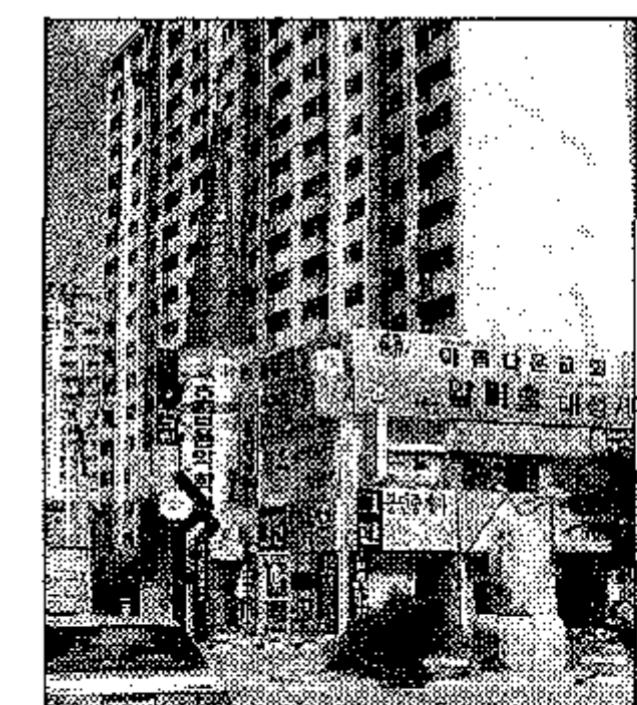
○ 실로암교회



풍덕천리 69-56번지에 위치하는데 1970년 김화석초대목사가 설립하고 1991년 2월에 은퇴한 이래 현재 기독교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는 최성대(49세) 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대지 121평에 2층 52평 건물의 교회다. 목사 외에 전도사 1명과 신도 130명, 어린이부 30명, 중고등부 10명 규모의 교회다. 지역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이익’이라는 설립목표를 지향한다. 노인복지에 중점을 두는 봉사활동과 종교인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 아름다운교회

풍덕천리 704-3번지에 위치한다. 1998년에 연재원(39세) 목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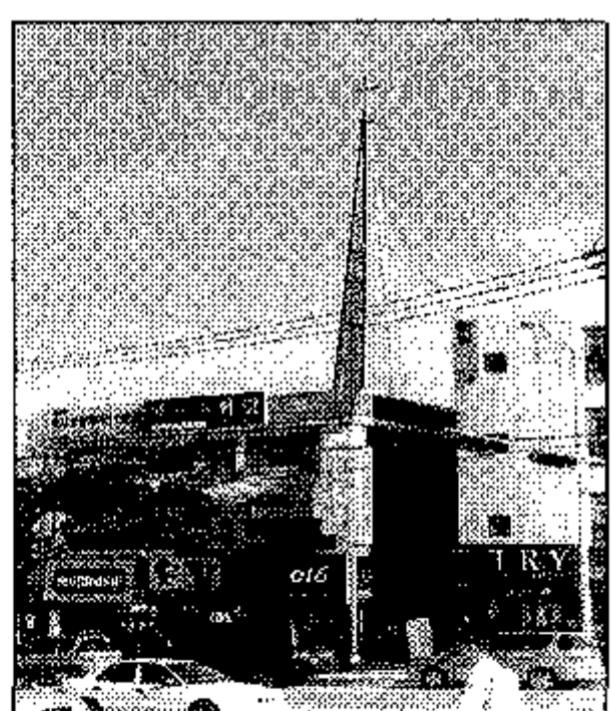


설립한 교회로서 상가건물에 위치한 70평규모의 교회다. 담임목사 외에 전도사 2명이 신도 60여명(성가대 15명), 청년부 10명, 유초등부 40명과 목회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를 지향하며, 선교지역의 컴퓨터교실, 문화, 음악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부축구부가 경기도 내 몇몇 교회끼리 친목축구대항을 한다.

○ 아름다운안디옥교회

1993년 설립된 ‘아름다운교회’를 개명하여 1996년에 죽전리 1832번지 벽산단지 상가지하 180여평에 김경섭(48세) 목사가 다시 설립한 교회다. ‘영도들의 영적 행복을 추구하고, 풍성한 말씀에 끓을 먹이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로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한다. 담임목사 외에 장로 1명, 전도사 6명이 신도 250명과 목회한다. 부설선교원에 300여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본 선교원에는 영어선교원과 어린이 학습반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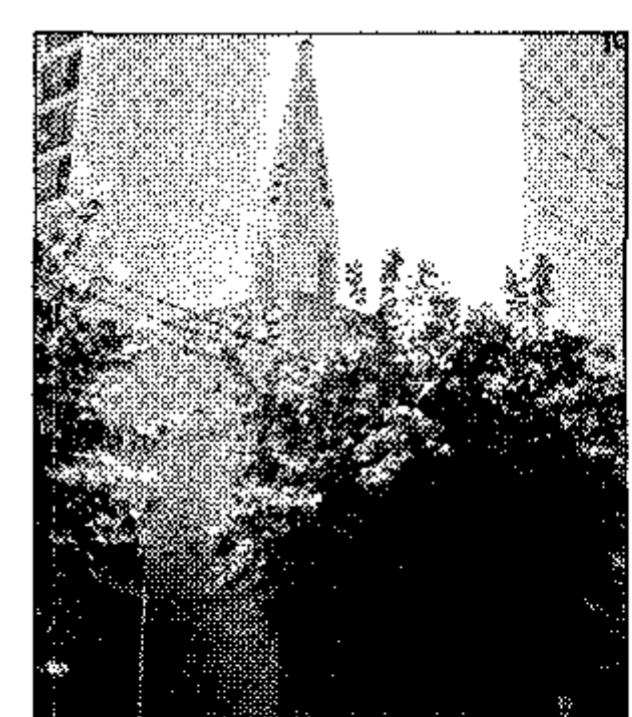
○ 아성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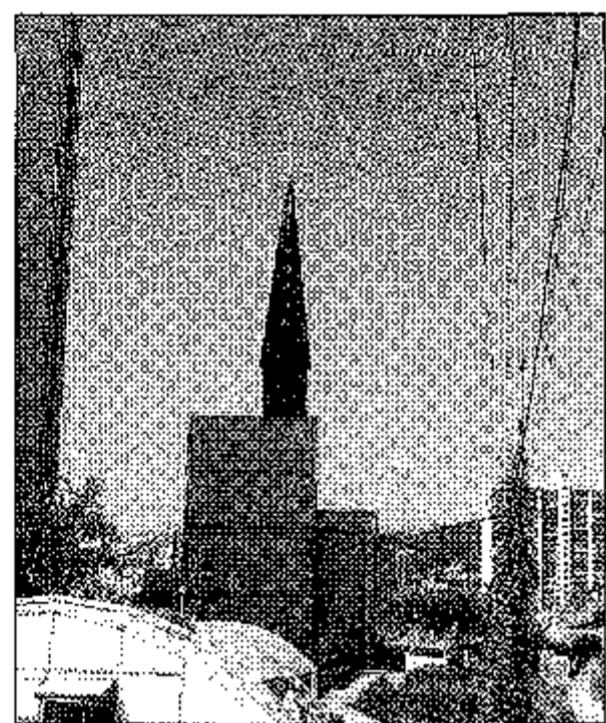
풍덕천리 711-18번지에 위치한다. 1995년에 이병열(40세) 목사가 설립한 교회로서 ‘신령한 교회, 깨끗한 교회, 튼튼한 교회’를 지향한다. 상가건물 2층에 80여평을 교회로 사용하며 신도수는 150명에 이른다.

○ 언약교회

1996년 풍덕천리 건영아파트상가 60여평에 임순자씨가 설립한 교회다.



○ 열리는 교회(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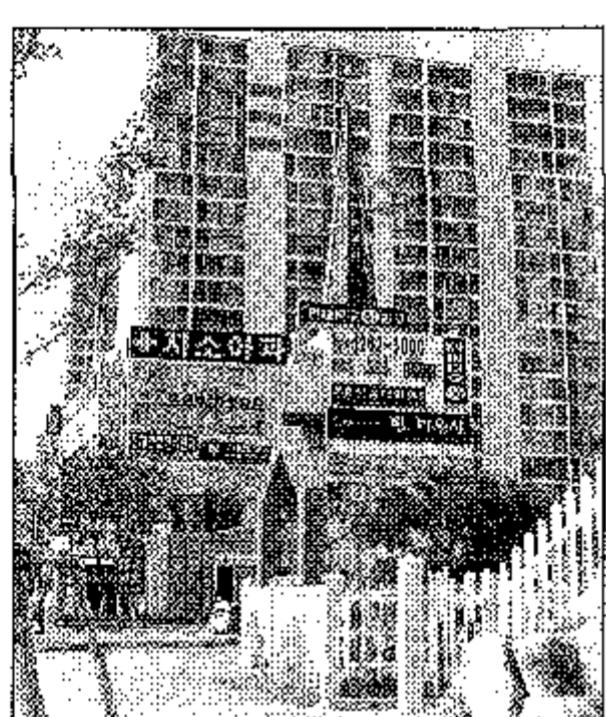
죽전리 414번지에 1999년 김자종목사가 ‘사랑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교회’를 위해 설립하였다. ‘평신도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서 평신도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한다.

○ 열린교회(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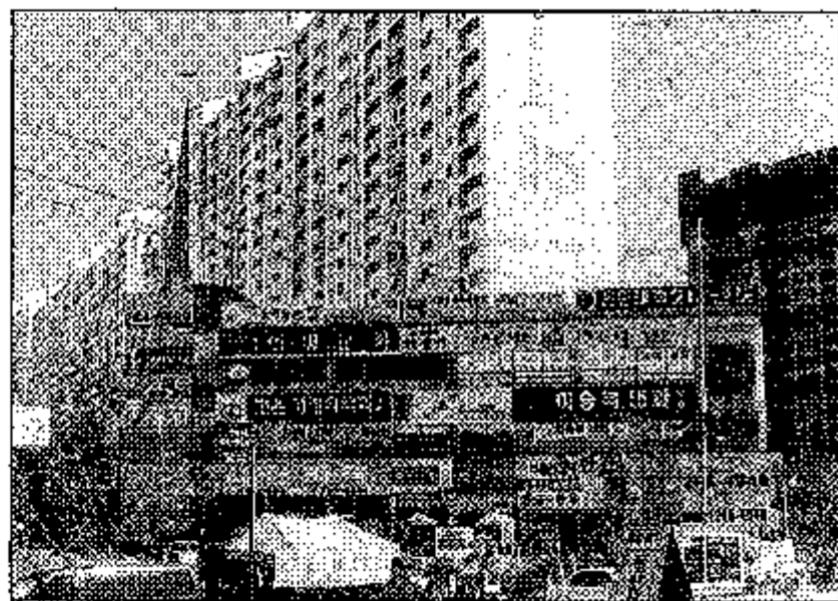
상현리 194-5번지에 양명두목사가 설립하였고 동십자상을 강단 앞에 모시고 있는 아늑한 교회이다. 교회 안에는 500여석이 있고 신도는 약 100명규모이다. 주일에 축구와 주말영화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있고, 연예인을 초청하여 간증과 지역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열린문교회(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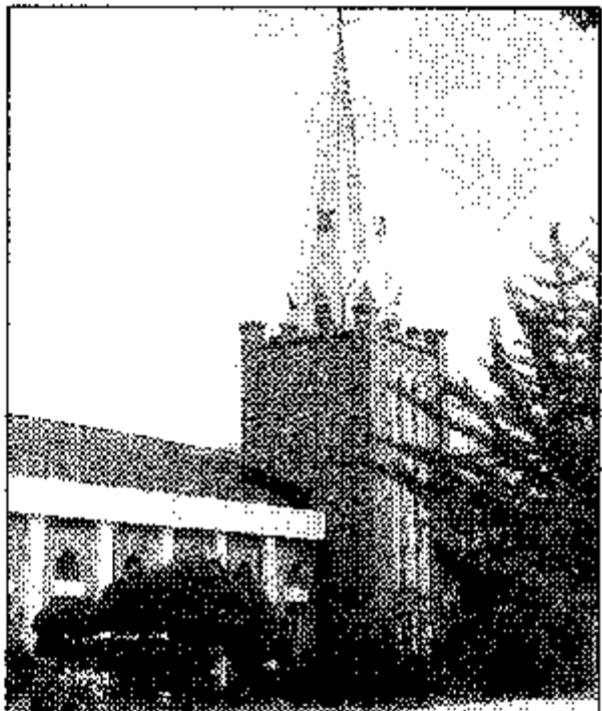
1996년 수지읍 수지택지개발2지구 풍덕천리 66-113번지 상가건물 35평에 설립한 교회다. 윤여성(45세) 담임목사 외에 4명의 전도사와 해외체류 중인 선교사들이 교회를 위해 목회를 하고 있다. ‘한 뿌리, 한 몸을 가진 교회’를 지향하며 신방을 중심으로 목회를 한다. 주보에 금주의 추천도서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열방교회(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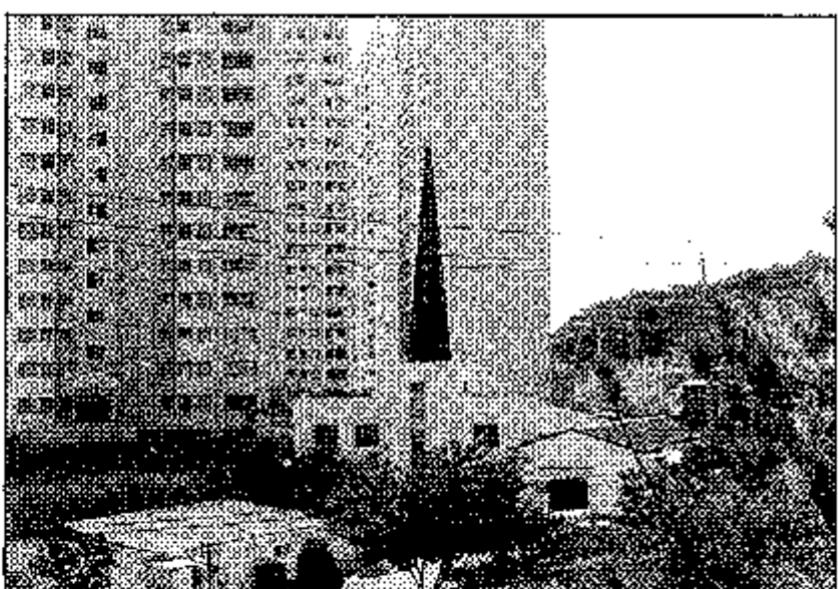
2000년 4월 죽전리 1003-486번지에 안병만(49세) 목사가 설립한 교회다. 협동목사 1명, 강도사 1명, 전도사 2명이 신도 100여명과 청소년부 5명과 목회한다. ‘성령의 공동체, 양육공동체, 섬김공동체, 가족공동체, 선교공동체라는 5개 기둥’을 교회목표로 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장학, 구제사업을 한다. 주요 봉사활동으로는 결식 아동급식과 교회창립1주년기념으로 용인시에 의뢰해 선정된 4~5명의 소년소녀가장을 뒷바라지해주고 있다.

○ 염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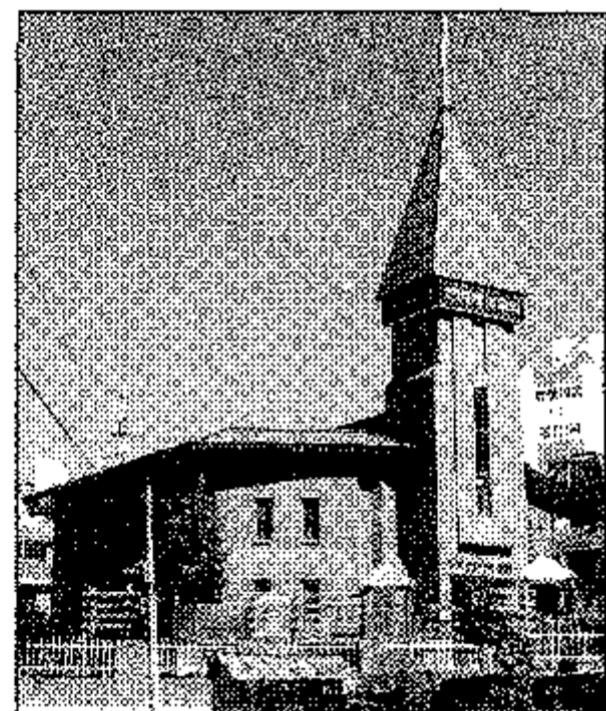
1965년 동천리 419-1번지에 설립된 교회로 현재 담임목사는 황인수(47세) 목사이다.

○ 영락교회



풍덕천리 3007-1번지에 위치한다. 2000년에 배성식(42세) 목사가 설립한 100여평 규모의 교회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 됩니다.’라는 표어를 지향한다. 신도수는 300여명에 이른다.

○ 예광교회(예장)



1996년 죽전리 428-1번지에 조은칠목사가 설립하였다. 담임목사 외에 선교사 3명과 2명의 전도사, 그리고 2명의 장로가 교회를 위해 일한다. 어린이집을 부설로 운영한다.

○ 예수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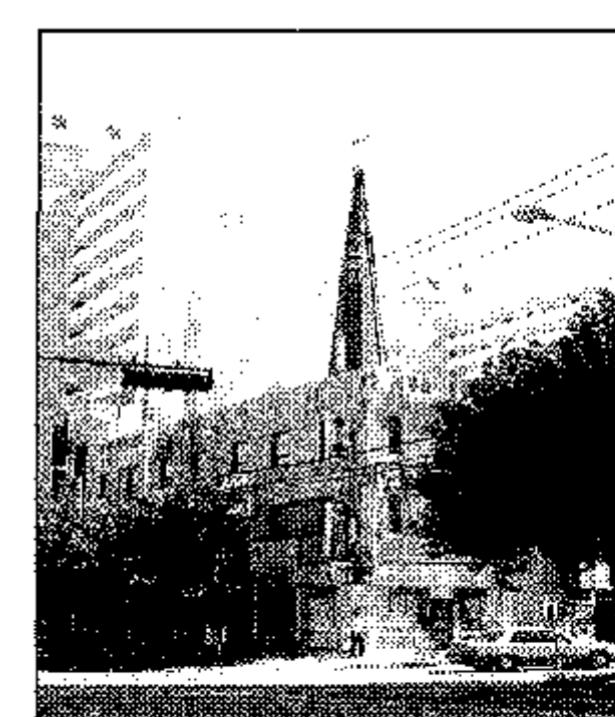
2000년 풍덕천리 704-6번지에 곽승연(35세) 목사가 ‘모든 마을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한 개척교회다. 상가 3층에 50여평 규모로 앞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특히 심신이 피곤한 사람이 편안해지를 기원한다”고 한다.

○ 예승교회(예장통합)

2000년 4월 풍덕천리 1034번지에 이승호(45세) 목사가 설립한 교회다. 담임목사 외에 전도사 3명이 신도 80명, 유치부·청소년부 60명과 함께 목회를 한다. ‘지역주민 섬기기’를 목표로 하는 이 교회는 주로 문화에 중심을 두고 청소년을 위한 종이접기, 레고, 동화구연, 글짓기, NIE지도를 하고 성인을 위해서는 영어회화문화센타를 하고 있다. ‘자연과 하나님, 인간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교회다.

○ 예일교회(예장)

풍덕천리 664번지(삼익·풀림·동아아파트단지 내) 상가 3층에 위



치한다. 박태규담임목사와 2명의 전도사가 목회를 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 행하는 교회’로서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를 목표로 한다.

○ 온사랑교회

풍덕천리 일성빌딩에 있다가 1995년에 현재 위치 성곡리 478-5번지로 이전한 교회이다. 현재 이광진(44세) 담임목사가 전도사 1명과 목회를 한다. 교회는 대지 100평에 40여평 규모의 1층 벽돌건물이고 신도수는 20여명이다. 선교구제를 주요활동으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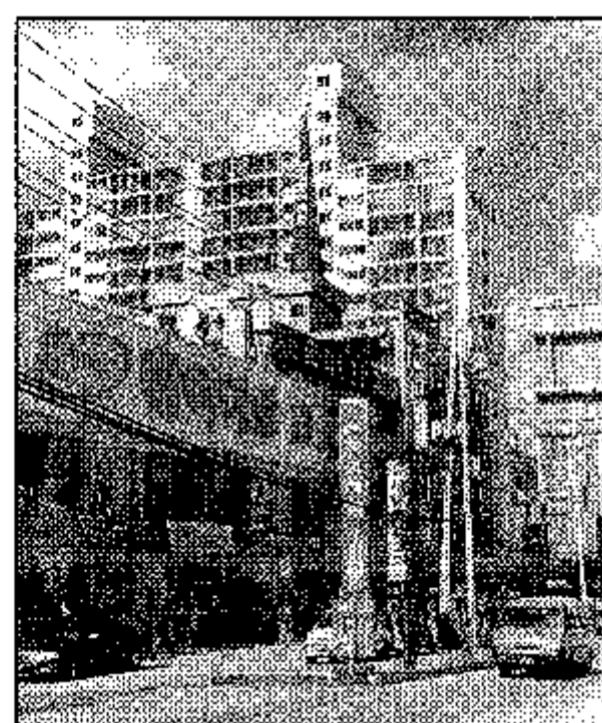
○ 은성교회

1997년 성복리 431-2번지에 원종진(43세) 목사가 설립한 교회다. 대지 100평에 52평 규모의 교회다. 신도수는 15명이며, ‘교회 없는 동네로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여 새롭게 교회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무의탁노인이나 장애인을 섬기는 뜻으로 병원을 같이 다니는 등 봉사활동을 한다.

○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풍덕천리 687-2번지에 1992년 김영한(50세) 목사가 설립하였다. 대지 103평에 150평 교회건물에서 담임목사와 전도사 1명이 신도 200명과 함께 목회를 한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목표로 한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전도에 주력하여 40-50명이 참가하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멀티미디어선교를 위하여 영상설교를 겸하기도 한다.

○ 자유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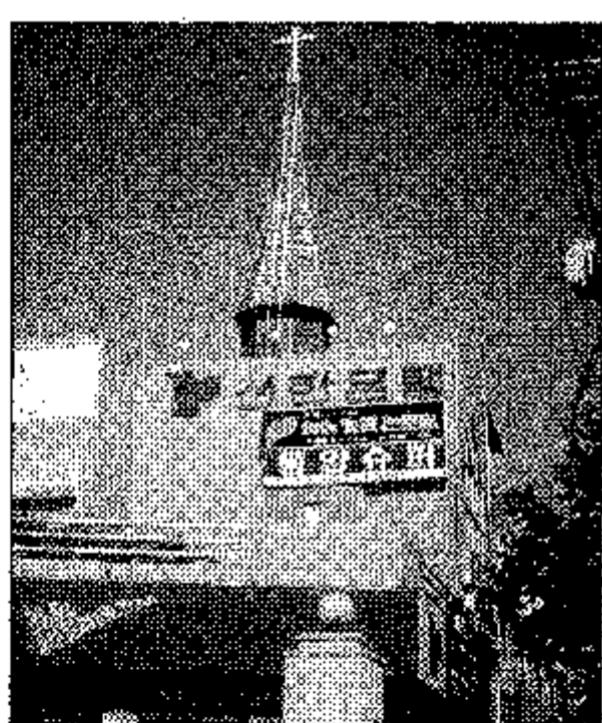


풍덕천리 239-3번지에 위치하며 임종수담임목사를 중심으로 1999년 2월에 설립된 교회다. 본당과 교육관, 유아방을 포함하여 300여평 규모에 5인용 장의자가 50개 있고 십자상이 강단 앞에 있다. 담임목사와 박지덕원로목사 외에 협동목사 2명, 전도사 2명, 장로 4명이 중심되어 60~70여명의 신도와 목회활동을 한다.

○ 재림교회

1997년 풍덕천리 730-2000번지 40여평의 상가건물에 김인상(40) 목사가 설립하였다. 초대전도사 1명과 장로 1명과 신도 60여명이 목회를 하는데, 주로 천연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교육과 교회주변에 있는 풍덕중고등학교에 가서 금연교육도 한다. 보건사 자원봉사를 하고 교단차원에서 요양원을 설립하는게 희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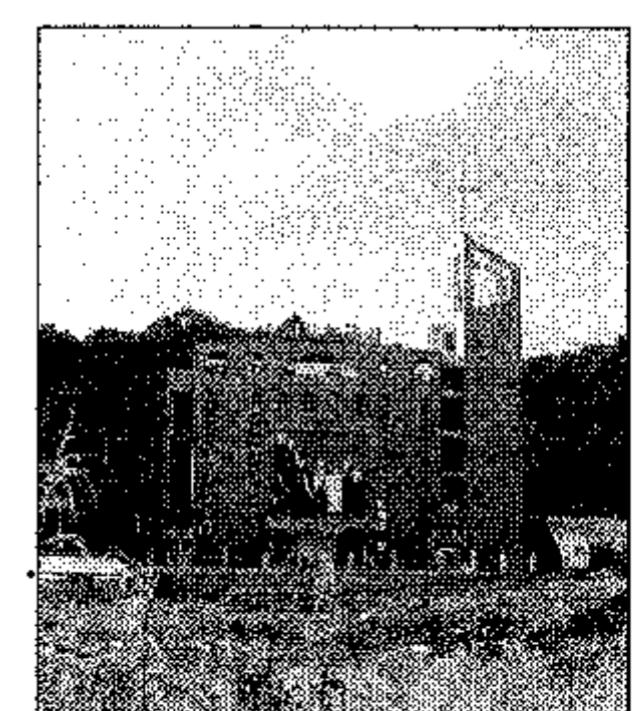
○ 전원교회



서울 양재동에서 목회하던 박선규(50세) 목사가 1995년 1월에 풍덕천리 동문아파트상가에 설립한 교회다. 2층 건물에 150평규모로 예배당과 교육실을 갖는다.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 2명, 장로 2명, 전도사 3명이 신도 400명과 함께 목회한다. 서당이나 골방, 사랑방이 있는 ‘고향과 같은 교회’를 지향한다.

○ 제일교회

상현리 385-1번지에 위치한다. 1989년 박경남(48세) 목사가 설립



한 교회로서 대지 409평에 연건평 500평 규모의 6층 건물이다. 올해 11월 10일에 입당 할 계획으로 교회건축이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별관은 독거노인을 위한 시설이다. 박목사 외에 부목사 1명, 초대장로 1명, 전도사 1명이 신도 200여명, 청년부 30명, 학생부 50명, 유초등부 40명과 목회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뜻에 따르려 하며, 현재 노인을 위한 화요급식을 하고 있다.

○ 제자교회



선우건(45세) 목사가 풍덕천리 193-8번지에 설립한 교회다. 담임 목사 외에 전도사 3명이 신도 80명과 목회를 한다. 교회명처럼 ‘제자가 되자’는 뜻을 지향한다.

○ 조은교회

오봉기(47세) 목사가 풍덕천리 682-7번지에 설립한 교회다. ‘이땅에 백성이 위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친구 되도록 돋는 교회,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회’를 지향한다. 재정의 90% 이상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려하는데, 현재는 20%를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상가건물 지하1층에 50평을 교회로 사용하는데 노인과 장애어린이를 위하는 복지관설립을 희망한다.

○ 주계신교회(순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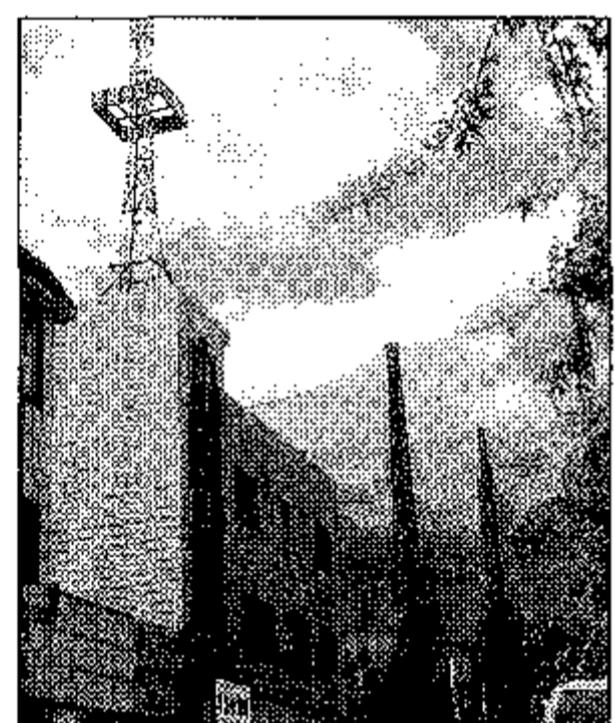
죽전리 484-14번지에 2000년 6월에 문철수(53세) 목사가 설립한 교회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고 200석의 예배의자가 있다. 신도는 80명 규모다. 교회목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을 찬미하고,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가족이 되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백성을 교육하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사랑을 나타낸다'고 한다.

○ 주아내교회는

2000년 풍덕천리 668-2번지에 금주오(41세) 목사가 설립하였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지향하여 ‘참예배(7370)를 드리는 교회,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단독주택 내 지하 41평에서 신도 30여명과 목회를 한다.

○ 주영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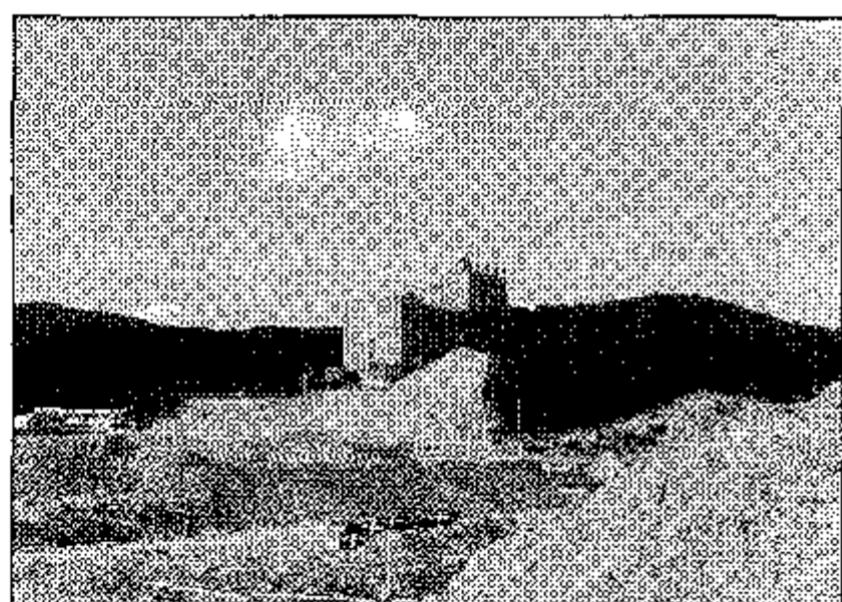


2000년에 이전세(44세) 목사가 풍덕천리 737번지에 설립한 교회다. 지하에 위치한 35평규모의 교회로서 신도는 20여명이다. 서울 사당동에서 이전한 개척교회로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표어를 지향하며 문화예술분야로 선교활동을 강화하려고 한다.

○ 주용교회

2000년 5월에 이용교(43세) 목사가 설립하였다. 죽전리 8831-1번지 아파트상가건물 3층에 소재하는 약 50평규모의 교회다. ‘신노하는 신앙’을 목표로 주로 청년중심의 선교를 문화, 예술중심으로 하려고 연구 중이다. 수지지역이 개발 중이어서 선교의 방향을 아직은 정하지 못하였는데, 지역이 어떤 성격으로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선교방향도 정해져야한다고 한다.

○ 지구촌교회(침례)



신봉리 1-1번지에 1994년 1월에 설립된 교회이다.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회로서, 지하1층부터 지상7층의 8개층 건물이다. 4층에 본당을 두고 교육시설, 자료실과 독서방, 세미나실, 기도실, 회의실과 휴게실, 법률상담실, 의료상담실 등 복지시설까지 갖춘 교회이다. 국내외 수십 여 곳에 자매선교회나 협력선교기관, 동역. 협력교회가 있다. 현재 이동원담임목사 외에 수석부목사를 포함해서 부목사 22명, 협동목사 5명, 전도사 7명, 그외 교구전도사. 전문사역전도사, 교육담당전도사가 80여명에 이른다. 파송선교사와 협력선교사를 포함 선교사와 자비량을 합하면 200여 신도가 지구촌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

지구촌교회 ‘철저한 성서교육과 복음전도훈련, 그리고 선교훈련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해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역동적인 교회성장을 추구하여 공동목회에 의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탄생하였다’고 하는데 1993년 11월부터 풍덕천의 선경스매트복지관 5층에서 시작 1994년 5월 서울 양재동 횃불회관과 정신여고 강당예배를 거쳐 1995년 8월 분당 정자동 성심빌딩으로 이전하여 분당아파트의 신도수 급증과 함께 성장하였다. 3년 후 분당교회가 좁아서 수지에 새로이 현재의 교회를 건설하여 이전하였다.

교육훈련과정이 필수반(중고등부가 주요 대상), 일꾼훈련반, 목자훈련반, 성서아카데미로 구성되어 목회자양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평신도와 목회자 지도를 위한 열린성경학교, 기타 선택반, 평신도를 위한 선교대학 등을 운영한다. 봉사활동으로는 소년소녀가장돕기, 불우노인돕기, 장애자 및 관련단체돕기, 교회 내 실직자 가정 돕기, 호스피스 자원봉사, 아나바다운동 등을 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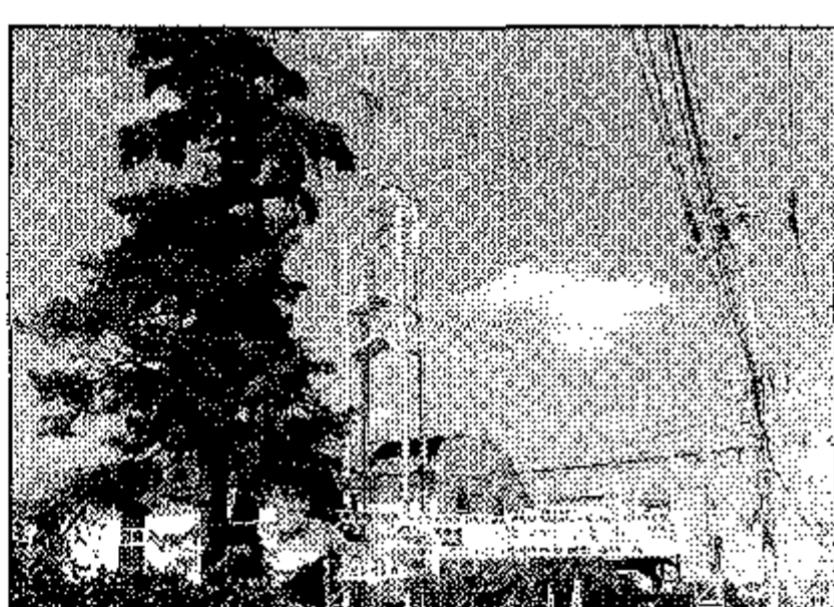
예배는 평일 오전5시의 새벽 기도와 미취학부와 어린이부를 위한 토요일 오후예배가 7시 30분에, 성인을 위한 예배는 7부로 구성되는데 1부는 토요일 오후 7시 30분예배, 2부는 주일 오전 7시 30분예배, 3부는 오전 9시 30분예배, 4부예배는 영상으로 진행하

는데 주일 오전 11시 30분, 5부는 주일 오후 1시 30분예배, 6부는 주일 오후 3시 30분 예배, 7부는 주일 오후 5시 30분예배를 진행한다.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를 위한 영어예배가 각각 1주일에 1회씩 진행되고, 장애아동을 위한 주일 오전의 예배, 영.유아. 유치부를 위한 주일 각 3회씩의 예배와 수요예배,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 각각을 위한 2~3차례의 토요일과 주일예배, 기타 청년부예배 등이 있고 수요예배를 정오12시와 오후 7시 30분 2회 진행하며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10시에 철야기도회를 갖는다.

○ 진실로교회(예장)

1995년 1월 풍덕천리 51-4번지에 원인식(45세) 목사가 설립하였다. 상가건물에 70여 평을 교회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죄악된 심령이 구속함을, 상한 심령이 안위함을, 지친 심령이 능력을 얻어 진실된 예수님의 열매가 되어주어야 할 때에 열매를 맺기 위해 가르치는 교회’를 지향한다. 담임목사가 신도 50명, 학생부 20명, 유초등부 40명과 함께하는 교회이다.

○ 찬양의교회(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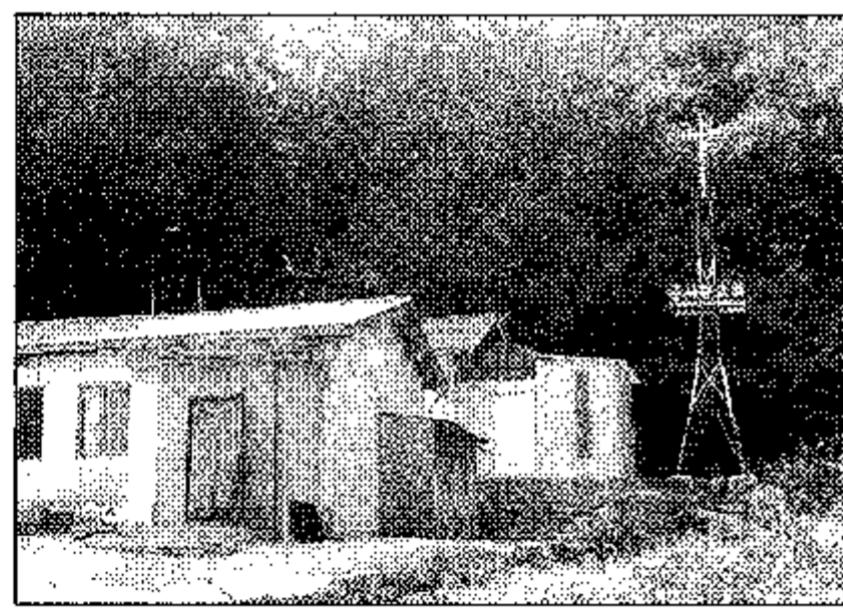
죽전리 513-7번지에 위치하며 1996년에 박찬식(41세)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목표로 설립된 교회다. 대지 112평에 건평 130평규모의 교회건물에 150명 신도가 있는 교회다. 새가족입문과 양육, 성경공부.전도 학교, 지도자.제자반으로 나누어 신앙인교육을 시키는 제자화과정이 있다.

○ 초대교회

조제혁목사가 설립하여 풍덕천리 675-8번지에 소재했는데 2000년 6월 안산으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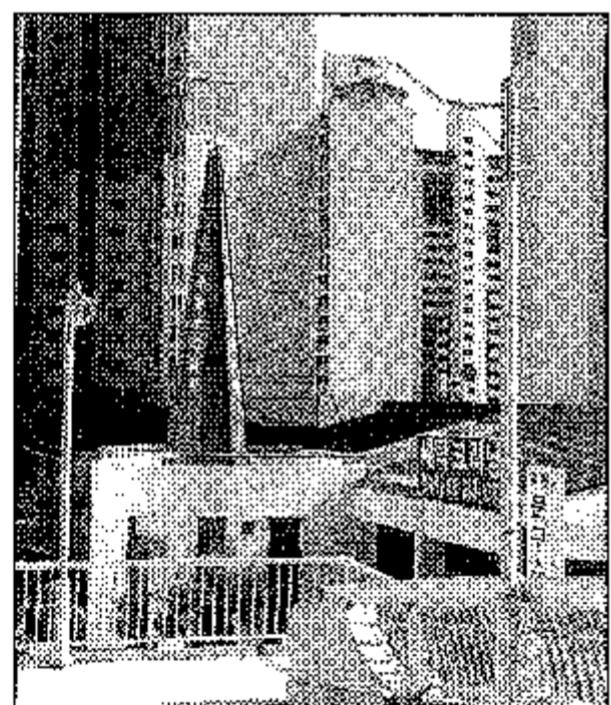
사갔다.

○ 큰사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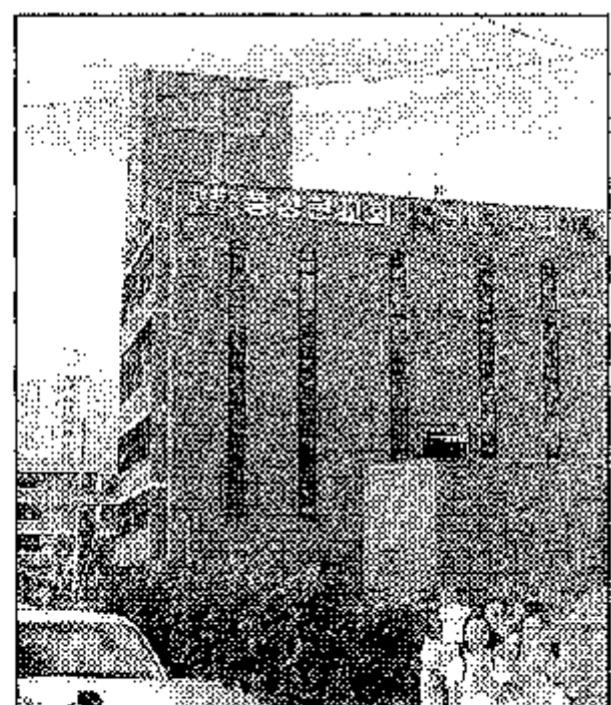
고기리 478번지에 위치한다. 1985년에 배종천목사가 설립한 이 교회는 현재 김기한(46세)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교회는 단독건물이며 중앙에 십자가상이 있다. 35석의 예배의자와 풍금이 놓여있고 신도수는 30여명이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를 지향하며 ‘열방과 지역사회를 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큰사랑교회의 비전이다.

○ 푸른초장교회



풍덕천리 수지2지구 주공9단지상가 내에 위치한다. 2000년 5월에 김용은(44세)목사가 설립한 교회로서, 약 30평규모 교회건물 안에는 70여석의 예배의자가 있다. 담임목사 외에 1명의 전도사가 신도 30여명, 중고등부 5명, 유·초등부 30명과 목회를 하며 유아원을 부설로 운영한다. 교회를 설립한 목적은 ‘예배와 전도, 육성, 봉사를 중심으로 사랑공동체, 선교공동체, 주님에 대한 절대공동체’라고 한다.

○ 풍성한교회



풍덕천리 509-4번지에 1999년 양바울(47세)목사가 ‘재능을 발견하여 쓰임 받자, 헌신 충성하기 위해 훈련받자, 초대 가정교회의 원형을 배우자’는 표어와 함께 가정교회 기초다지기에 중점을 두고 설립한 교회이다. 대지 135평에 연건평 270평규모 건물에는 본당을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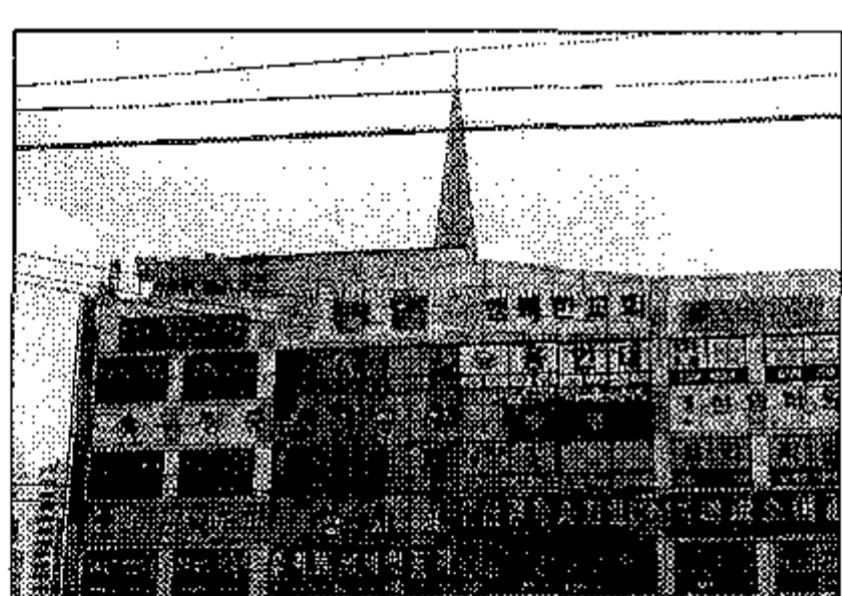
함 소회의실, 어린이집이 있다. 담임목사 외에 전도사 1명, 강도사 1명이 신도 20명과 목회를 한다.

○ 한동교회(예장)



동천리 465번지(삼성아파트건너 동산 편)에 위치한다. 1981년부터 서울 명일동에서 활동하던 교회를 1995년 수지의 현 위치로 이사하였고, 김천기담임목사와 전도사 2명이 신도 250여명과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를 교회목표로 목회를 한다.

○ 행복한교회



1996년 김형수(45세) 목사가 설립하였다. 담임목사 외에 전도사 2명이 신도 50여명과 CMS어린이 영어 미국인선교사가 함께 목회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를 지향하며, 뜨거운 성령운동으로 내적 정신적 치유와 잔병치료를 돋고 있다고 한다.

○ 향유내음가득한교회



1999년에 풍덕천리 665번지에 고경률(39) 목사가 설립한 교회다. 지하 40평에 위치한 이 교회는 담임목사 외에 전도사 1명이 신도 20명, 아동부 12명과 목회를 하는데, 가정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지향한다. 특히 아이들 학원사역에 관심을 갖는데 ‘준비된 그리스도인 만들기’를 목표

로 한다.

○ 호산나교회



풍덕천리 702번지에 위치하는 붉은색 벽돌 건물의 교회이다. 담임 목사는 나인권 목사이다.

○ 화광교회(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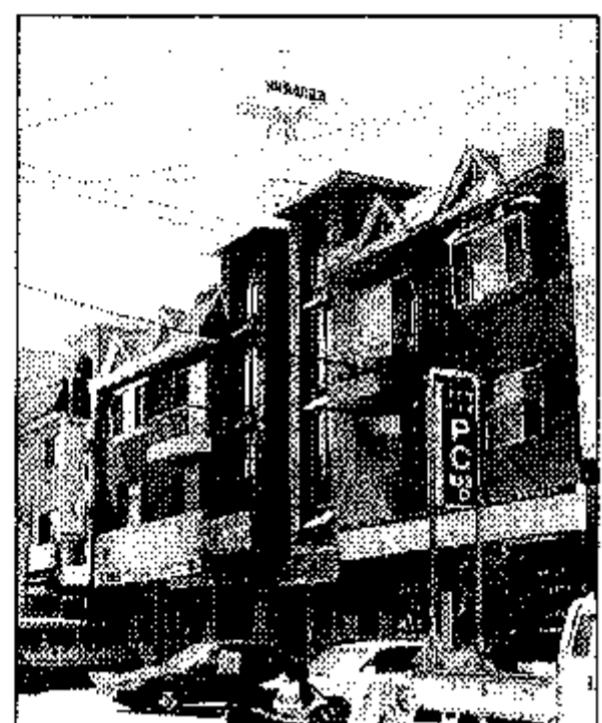
풍덕천리 1014번지에 위치한 교회로서 1995년 서울 상계동에서 교회를 설립한 윤호균 목사가 2000년에 현재의 풍덕천리 건평 100여평의 상가 지하에로 이사하였다. 신도 수가 400명에 이르는 이 교회는 담임목사 외에 2명 전도사, 장로 1명이 5교구장과 함께 구역예배를 진행한다. 화광교회는 중국과 선교사교류를 하고 소년소녀가장 5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 헬로쉽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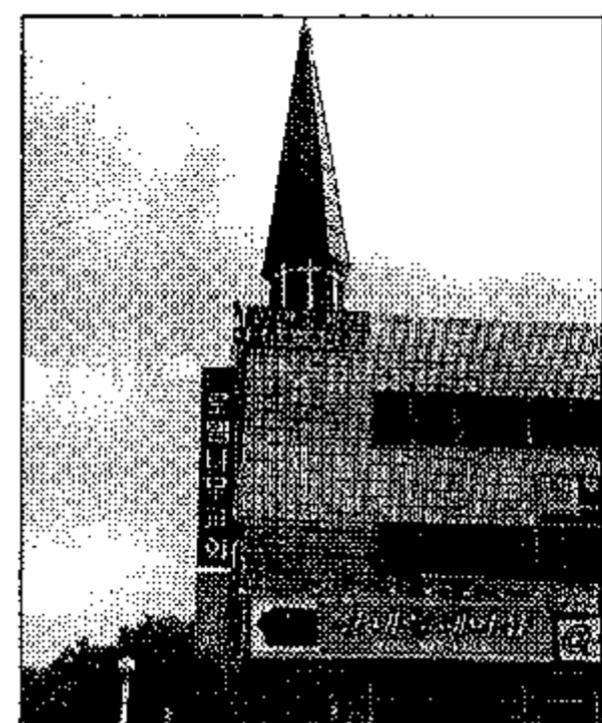
풍덕천리 1082-1번지에 위치한 이 교회는 1999년에 김요한(47세) 목사가 설립하였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담임목사의 영향으로 교회시설과 예배형식이 우리의 전통과 미국식을 병합한 형태다. 부목사 1명과 전도사 5명, 신도 30명 규모의 이 교회는 본당에 300석이 있고, 교육관과 유아방을 운영하며, 유치부와 초등부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예배를 진행하고, 중·고등부에서는 영어로 예배를 본다.

〈진철문〉

그 밖의 교회 사진들이다.



남서울 제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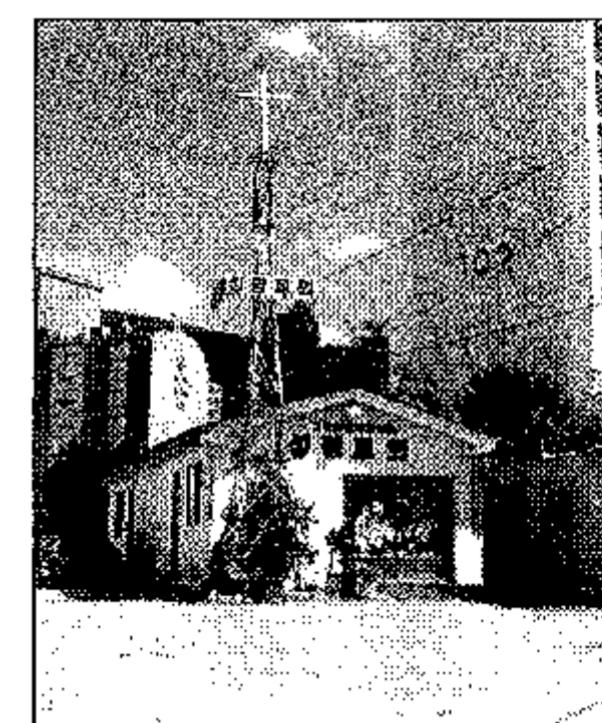
로뎀나무교회



벨엘교회



샘터교회(침례)



성광교회(침례)



세계비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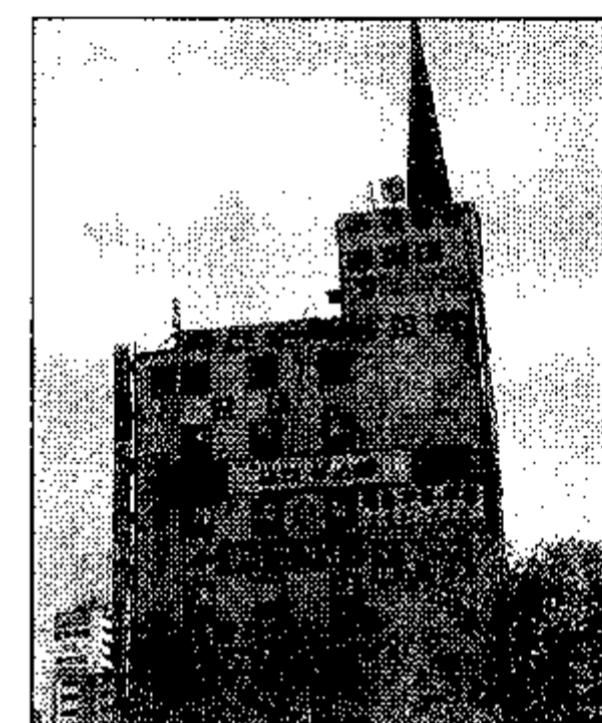
수지시온교회



영성교회



정다운교회



죽전순복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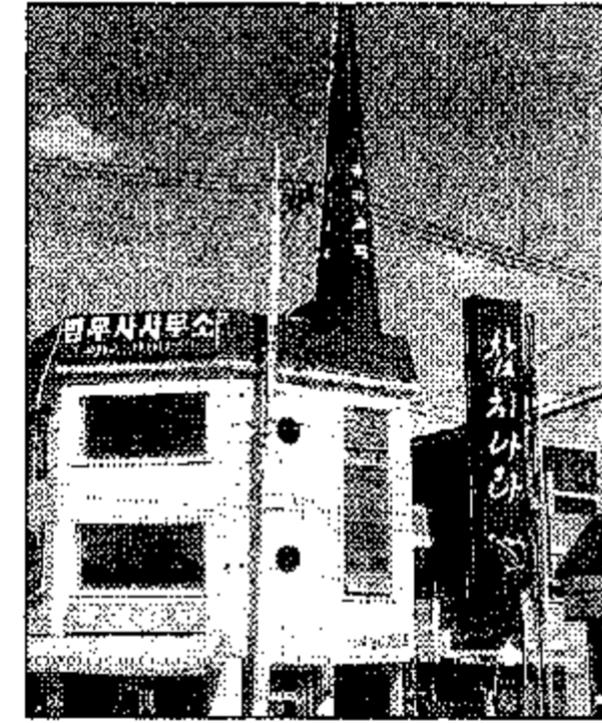
충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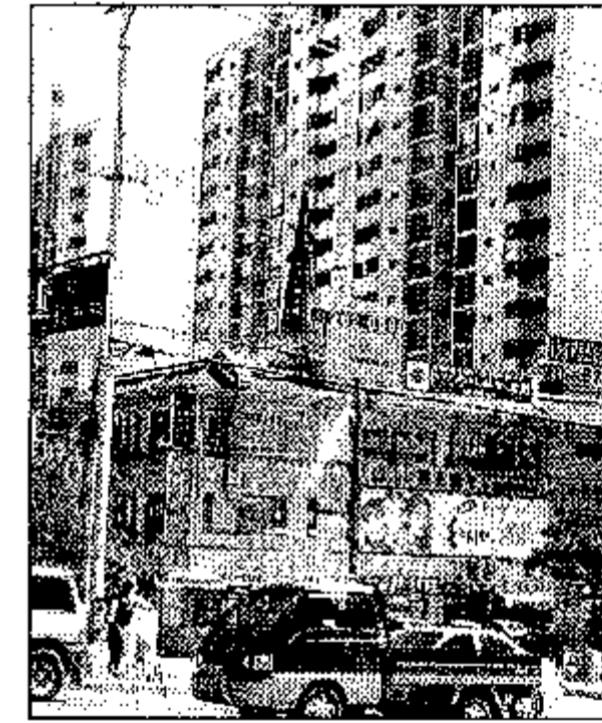
신소망교회



은혜교회



금곡교회



수지만능교회